



군산장례(전문)예식장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동군산 장례식장



'가장 가깝고, 가장 편리한 곳에서
마지막 친절을 보내주세요'

T. 441-4444



SHIDAO International Ferry

상상
그 이상을 향해서!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페리(주) www.shidaoferry.com

부산 **tel.** 051-441-1111 **fax.** 051-441-1110

전주 **tel.** 063-271-5500 **fax.** 063-271-5501

서울 **tel.** 02-303-7511 **fax.** 02-303-7511

인천 영종도 **tel.** 032-461-1001 **fax.** 032-461-2011



박승일
회장
newgunsanews@naver.com



김민재
운영위원회
newgunsanews@naver.com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강권모
부사장
sky6113483@hanmail.net



이종은
편집부장
leejony_@daum.net



최승호
취재부장
gsport11@naver.com



박세원 편집위원
작가
hamp38@hanmail.net



배수정 편집위원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 서양화 강의
jimjlm710@naver.com



오성렬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poi3275@naver.com



신솔원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speedal@hanmail.net



이소암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교수
lsa6246@hanmail.net



신성호 편집위원
지필문학/대한문학
편집, 발행인
군산예총 부회장
shinez2580@hanmail.net



이영미 편집위원
프리모아트컬렉션,
(사)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이준호 편집위원
작가
sting4246@hanmail.net



조경신 편집위원
군산시기족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
학과 외래교수
vip2300@daum.net



한대산 편집위원
jbekt@naver.com



김선순 편집위원
시인
군산대학교 졸업
시치료·독서치료전문가



강해인 편집위원
godls468@naver.com



공종구 편집위원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kong@kunsan.ac.kr



한상오 편집위원
새만금환경생존연합 대표
hansango24@gmail.com



김철호 편집위원
계곡가든 꽃게장 대표
대한민국 명인·세계 명인
식품의약학 박사(조선대 대학원)
www.crabland.com



Vol.172 | 2025.08

회 장 박 승 일 newgunsanews@naver.com
 운 영 위 원 장 김 민 재 newgunsanews@naver.com
 발 행 인 채 명 룡 ml7614@naver.com
 부 사 장 강 권 모 sky6113483@hanmail.net
 편 집 부 장 이 종 은 leejony_@daum.net
 취 재 부 장 최 승 호 gsport11@naver.com
 편 집 위 원 강 해 인 godls468@naver.com
 편 집 위 원 박 세 원 hamp38@hanmail.net
 편 집 위 원 신 성 호 shinez2580@hanmail.net
 편 집 위 원 오 성 렬 poi3275@naver.com
 편 집 위 원 이 소 암 lsa6246@hanmail.net
 편 집 위 원 이 영 미 ycm1022@hanmail.net
 편 집 위 원 조 경 신 vip2300@daum.net
 편 집 위 원 최 영 두 cydnovl@naver.com
 편 집 위 원 한 상 오 hansango24@gmail.com
 편 집 위 원 한 대 산 jbekt@naver.com
 칼 럼 니 스투 배 수 정 jimjlm710@naver.com
 칼 럼 니 스투 신 솔 원 speedal@hanmail.net
 칼 럼 니 스투 공 종 구 kong@kunsan.ac.kr
 칼 럼 니 스투 김 선 순 3585711@naver.com
 칼 럼 니 스투 김 철 호 www.crabland.com
 자 문 위 원 이 진 우 jay0810@hanmail.net

공유와
협업이
새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산업적응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s) 부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연속 선정

고급직업교육 중심인문대학 | 교육부 고등직업교육 특성 지원사업 (국립) 시행 인정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2020년)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혁신지원사업(2020년) 교육부
교육부 대학기초대학성과 향상지원사업(2020년) 선정 | 교육부 교육부 우수원 일학습병행제(2020년) 운영대학
교육부 공채대학으로 선정 | 충청지역내일 모퉁이대학 | 교육부 신장합천신호대학 | 여성시업(2018년) 및 모퉁이대학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군장대학교

“군산, 위기의 끝에서 다시 도약을 모색하다”

군산은 지난 10여 년간 ‘인구 쓰나미’라 불릴 만큼 가파른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붕괴를 경험했다.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GM군산공장 폐쇄는 단 기간에 1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

군산은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됐다.

인구 감소와 경제 희생의 해법은 재생에너지와 신산업 유치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닦아 놓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표류했고, 추진 동력은 약화됐다.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왔다.

검찰 무혐의 이후, 남은 과제

강 시장은 최근 2년에 걸친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오랜 기간 소모적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해도, 음해성 투서와 고발이 남긴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도자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시민들은 불신을 키웠고, 반대 세력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강 시장이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법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생에너지와 RE100, 그리고 군산의 미래

군산이 다시 살아날 길은 명확하다.

첫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둘째,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다.

셋째, 현대중공업이 참여한 MASGA 프로젝트와 연계한 군산조선소 재가동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 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군산은 다시 ‘산업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앵무새식’ 고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제는 정치적 반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은파도로 개설, 옥회천 사업 등에서 제기된 횡령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럼에도 같은 주장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신을 부추겼다.

이른바 ‘앵무새식’ 고발은 공익 제보의 탈을 쓴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공익 제보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까지 포용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의 면죄부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임준 시장이 “온몸을 던져 군산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힌 것은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군산은 위기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살릴지, 또다시 갈등에 소모될지는 지도자와 시민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글 | 채명룡
본지 발행인

ml7614@naver.com



태양광사업 비리 수사 '무혐의', 날개 단 강임준 시장 인구 '쓰나미' 극복,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강임준 시장의 앞길은 탄탄해 보였다.

전북도위원을 두 차례(1998~2006년) 지낸 그는 야인 생활을 마치고 2018년 6월 처음 시장에 도전해 당선됐다.

전임 문동신 시장이 군산 경제 호황기의 혜택을 누렸다면, 강 시장은 기울어가는 군산호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정을 시작했다.

취임 당시 폭우가 쏟아졌고, 강 시장은 빗속을 돌며 피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시기는 현대중공업과 GM군산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군산 경제가 휘청였다. 누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는 시정 방향을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로 정했고, 군산사랑상품권 등 지역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성과를 냈다. 주민들의 호응도 컸다.

4년 뒤인 2022년,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인구 급감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군산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새만금을 찾으며 닦아 놓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차갑게 식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을 철저히 외면했고, 군산의 이차전지 기업 유치의 꿈도 가물거렸다.

험난한 시간을 지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RE100 산업단지 지정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언 강이 풀리듯 군산의 활로가 열릴 수 있을까.



2025년08월12일 제10회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강임준 시장 부부)



2018년07월01일 침수 피해지역 현장점검



2018년08월17일 군산사랑상품권 홍보 현장방문(나운동)

**반대를 위한 ‘반대’
누가 정의롭고, 누가 정의롭지 않은가**

군산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강 시장은 육상태양광에 이어 공공 해상풍력 사업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며 활로를 모색했다. 그 간절함 덕분인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적지로 떠올랐다.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지구에 포함된 5·6공구가 조기 분양을 마쳤습니다. 기업들의 문기도 빗발쳤고, 군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었지요.” 그러나 불뚱은 엉뚱한 곳에서 튀었다. 일부 세력들이 공익제보를 빙자해 투서와 고발을 이어가면서 시정 추진 동력은 약화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강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반대 세력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구속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떠들어댔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2년 가까이 압수 수색까지 벌이며 수사를 이어갔지만, 2025년 8월 6일 강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침묵하던 시민들이 따끔한 충고를 던졌다. “마치 사실인 듯 떠들던 그들이 지금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잖아요?” “음해 세력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누가 정의롭고, 누가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까?”

‘세치 혀’의 뿌리를 그대로 둘 것인가

2025년 8월 2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강 시장은 단호했다.

“육상태양광 관련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함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으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 한 권으로 묶인 서류 뭉치를 들고 “○○○클럽에서 나온 문건으로, 반대 세력이 작성한 음해의 실체”라고 했다.

또 “정식 포렌식 업체를 통해 만든 자료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고, 작성 경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무대응이 시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비판이나 비난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무대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음해와 악의적인 고소·고발, 끝없는 투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무대응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어조는 분명했고 목표가 뚜렷했다.

“현직 시장으로서 제약은 많지만, 있지도 않은 천문학적인 돈을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왜곡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로 유포하는 행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강 시장은 군산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도시’로 몰아가려는 특정 세력의 횡포를 ‘시정 흔들기’로 규정하고, “군산의 재도약을 위해 온 몸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단호한 표현은 이례적이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는다.

군산과 시민들이 입을 피해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군산을 ‘부정과 부패의 도시’로 현혹시켜 온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누가 위로할 것인가.

한 시민의 말은 울림이 크다.

“지도자는 위난(危難)의 순간에 더 빛이 납니다. 그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2020년05월07일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



2023년08월02일 잼버리 영의활동 격려방문



2025년02월22일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한 결기대회



시민 참여 에너지 자립사업의 안타까운 행로

시민들에게 재생에너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2022년 1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태양광 사업이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군산시민발전(주)이 전담하면서부터 “잘못 끼운 단추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4월, 이 회사 대표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강 시장의 정치력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2023년 7월과 2024년 초, 검찰은 군산시청 시장실·부속 실·태양광 담당 부서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곳곳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차별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된 감사·수사”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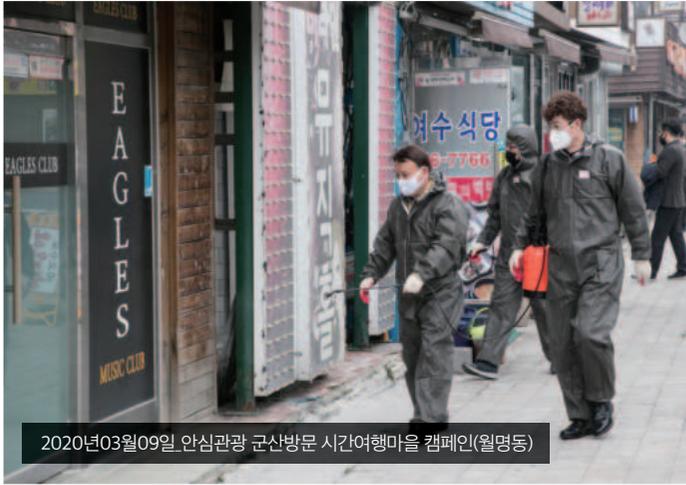
그러나 강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확산했고, 시정 동력은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칼끝 앞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실상 침몰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 시민의 몫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에 에너지 자립 법인 대표를 기업 운영 전문가도 아니고 검증된 인사가 아닌 자에게 맡긴 게 잘못”이라며, “애꿎은 시민들만 ‘에너지 자립이 아니라 에너지 피해’를 본 꼴”이라는 자조가 이어졌다.

2019년06월21일 해양쓰레기 정화행사(해수부장관 현장 방문)





2020년03월09일 안심관광 군산방문 시간여행마를 캠페인(월명동)

추락한 군산 경제,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

군산 경제의 두 축이 무너지자 지역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2017년 7월 1일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했고, 이듬해 2018년 5월 31일 GM군산공장마저 멈췄다. 글로벌 해운 경기 침체와 낮은 생산성 문제로 인한 결정이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위기에 몰렸고, 약 5천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GM 정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약 3천 명이 추가로 실직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군산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희망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소진된 이후 인구 급감 현상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심각성이 체감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군산 경제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가동되고, RE100 산업단지 지정도 새만금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신산업과 노동집약형 기업들이 몰려올 가능성도 크다.

인구 ‘쓰나미’ 극복,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군산 인구는 2013년 27만8,56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말까지 1만5,852명이 빠져 26만5,300명으로 줄었다.

이후 매년 2천 명 안팎이 감소해 2025년 7월 기준 25만6,646명에 불과하다.

한때 “30만 군산시민”을 자부했지만, 이제는 신규 공무원이나 교사를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25만 군산시민”이라는 표현이 자리 잡았다.



2024년05월08일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캠페인



RE100산단 지정을 바라는 기업인들



2019년07월12일 협치&소통을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1

강 시장은 인구 절벽을 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도전에 나섰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RE100 산업단지가 군산 경제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특히, 한-미 관세협정을 이끈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 1,500억 달러 펀드에서 군산조선소는 유지·보수(MRO)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 시장은 “현대와 한화가 참여한 만큼 정부에 ‘기업들이 준비됐

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군산조선소 활용 방안을 현대중공업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조선업을 부흥시키면서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머지않아 군산조선소가 다시 불을 밝힐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인구 ‘쓰나미’ 극복,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앵무새식’ 흠집내기인가

지난 3년, 강임준 시장은 흔들리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반대 세력이었다.

정치에는 찬반이 공존하지만, 군산의 경우 그 피해가 시민사회 전체에 미칠 정도로 과열됐다.

최근 몇 년간 강 시장을 향한 반대 진영의 여론몰이는 지나쳤다.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SNS에서 앵무새처럼 반복되며 악성 여론이 형성됐다.

대표적 사례가 은파도로 개설 사업이다. 유튜브를 통해 156억 원 횡령이 주장됐지만, 실제 순공사비는 59억 원(보상비 98억 원 제외)이었다.

2024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경찰은 강 시장 등 1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옥회천 사건도 마찬가지다. 2023년 고발된 허위공문서 작성·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은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2년06월17일 삼학시장 야시장 무료주점 행사

삼도예
학시비
시장재
장생업

일 시_2022년 6월 17일 (토) 17:30 ~ 20:00(150분)
장 소_삼학시장 (22)
주최_주관_삼학동시추진위원회
후원_국토교통부, 군산시 도시개발사업
협력_군산시 도시개발사업,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광 시스템, 마을기업, 군산 시민연대

2024년11월26일 수송동 김장김치 나눔행사



2024년06월25일 재해위험지역 현장방문



2023년09월20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2025년08월13일 군산 우물 전달식



군산시는 허위 현수막 게첩 등으로 ‘허위 보상·공금 횡령(1차)’, ‘향응 수수·근무지 이탈(2차)’ 등이 유포됐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는 범죄 요건에 해당하나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시민 여론이 갈라지고 공직사회가 마비되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전력을 다해 대응하겠다.”
군산시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악성 민원,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악성 민원,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금도 SNS에서는 수년 전과 같은 내용의 앵무새식 흠집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익을 빙자했지만, 이는 명백한 악성 민원이다. 의혹 제기로 범망을 계속 비껴가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다. 거짓말도 ‘공익제보’라는 이름 아래 제재받지 않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A변호사는 “특정 공무원을 지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공익제보를 넘어 형사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현실이 송구하다”며 “음해 세력들이 공익제보라는 틀에 숨어 범망을 피해 가고 있다.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시, 도전자의 입장에 선 것 같다.

“정치적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비열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지



자신을 향한 음해 백서를 들고 설명하는 강 시장



'옷장로랑' 고현 작가

“역사성과 정체성의 정통 빈티지 샵으로”
그림으로 성찰하고 발견하는 나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영화등엔 '옷장로랑'이 있고...

'옷장로랑'은 의류와 가방,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빈티지 샵이다. 가게 전면이 온통 노랑색이다.

노랑색답게(?) 밝고, 왠지 바라보는 이들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맨 위는 아주 연한 노랑이고 그 아래 기둥과 벽은 조금 더 진한 톤의 노랑이다.

출입구와 '창문선반(창문과 선반 역할을 동시에)은 짙은 녹색이다. 색감이 조화롭고 강렬하다.

출입문과 창문 사이엔 엔틱(antique)한 조명등 하나가 멋지게 걸려있다.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을 정도다. 첫인상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자!



길가에서 바라본 웃장로랑의 얼굴

한쪽 벽엔 크고 작은形形色색 다양한 여성용 가방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선반 맨 위엔 작가의 작품으로 보이는 그림 몇 점에도 눈길이 간다.

알만한 유명인의 (유화)초상화에 시선이 멈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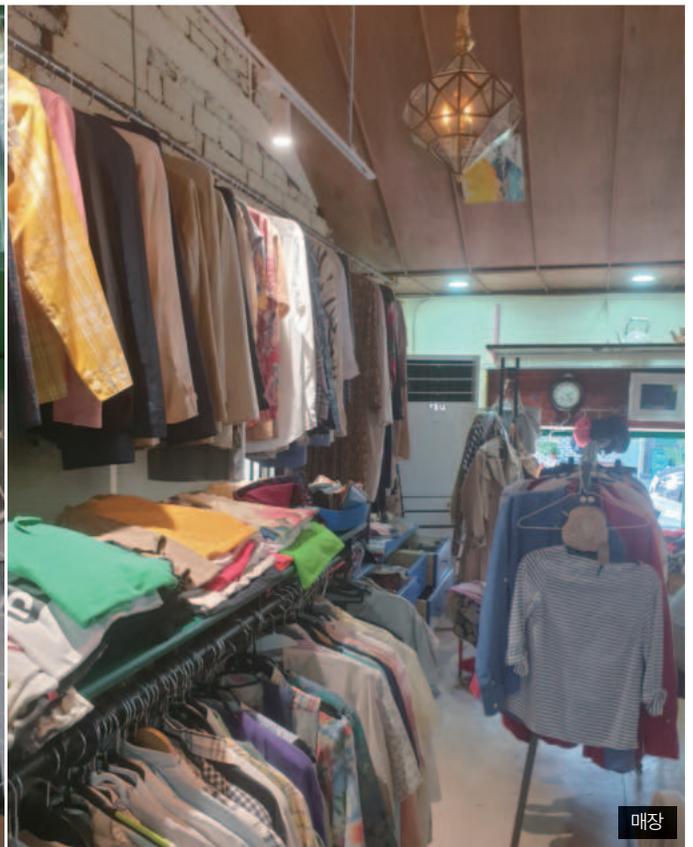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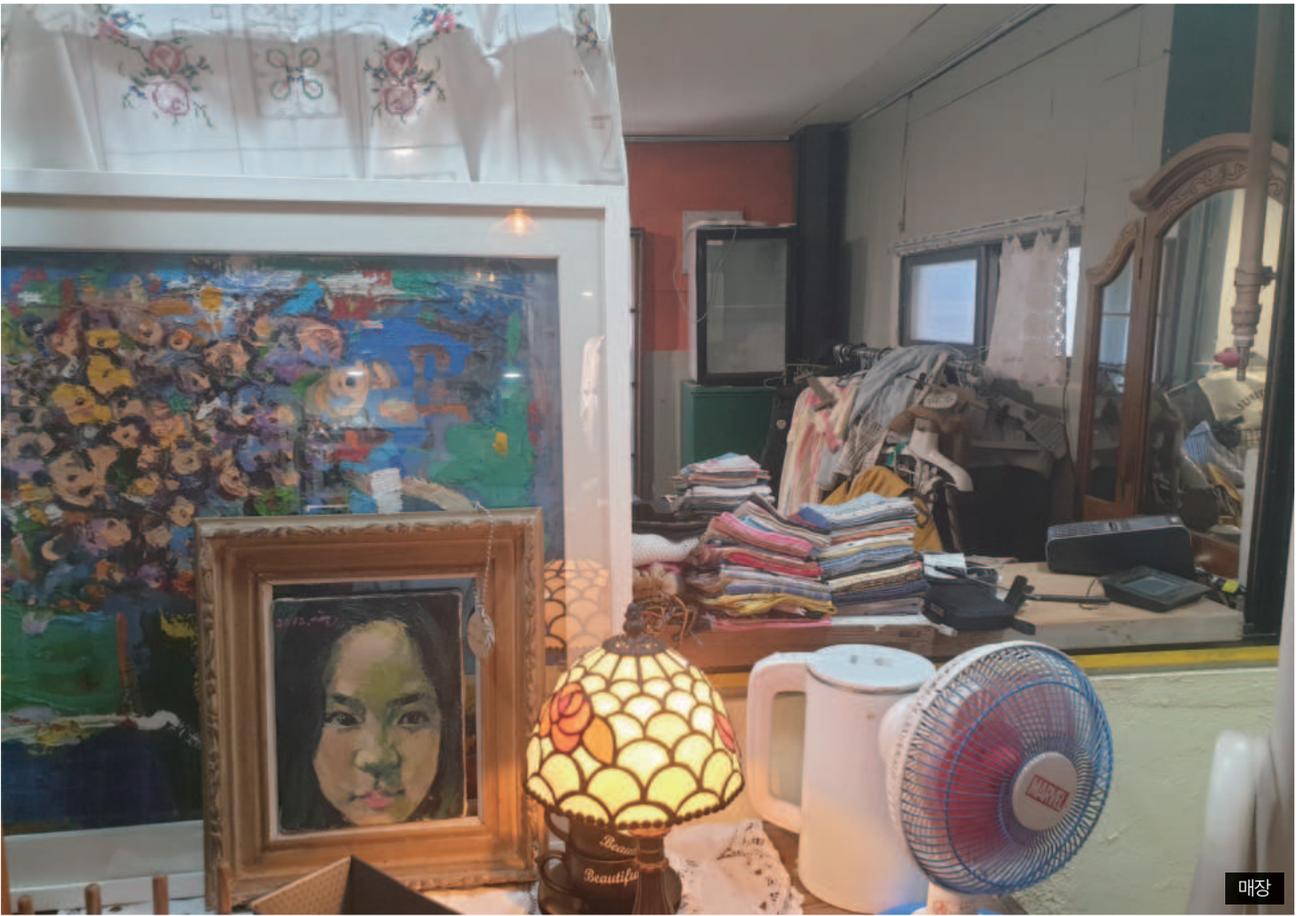
고현 작가는 미대 출신 화가이다.

마주하고 있는 다른 벽을 따라 의류들이 질서 있게 걸려있다. 자켓, 남방이 많고, 티셔츠도 사이사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시선의 끝, 창문선반 바로 앞에 멋진 프렌치 코트가 눈에 띈다. 공간 안 사이사이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자연스럽게 뽐낸다. 엣지(edge)있다.

“명품 중의 하나가, 잘 아는 ‘이브생로랑(ysl)’이다. 자연스럽게 명품 이미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센로랑’으로, 너무 직설적인 것 같은데... 순간 우리의 옛 옷장이 떠올랐다.

한창 구제가게들이 생기면서 옷장을 이름으로 많이 쓰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내가 노랑색을 좋아해서(색감이 이쁘다.) 벽을 전면적으로 노랑색으로 칠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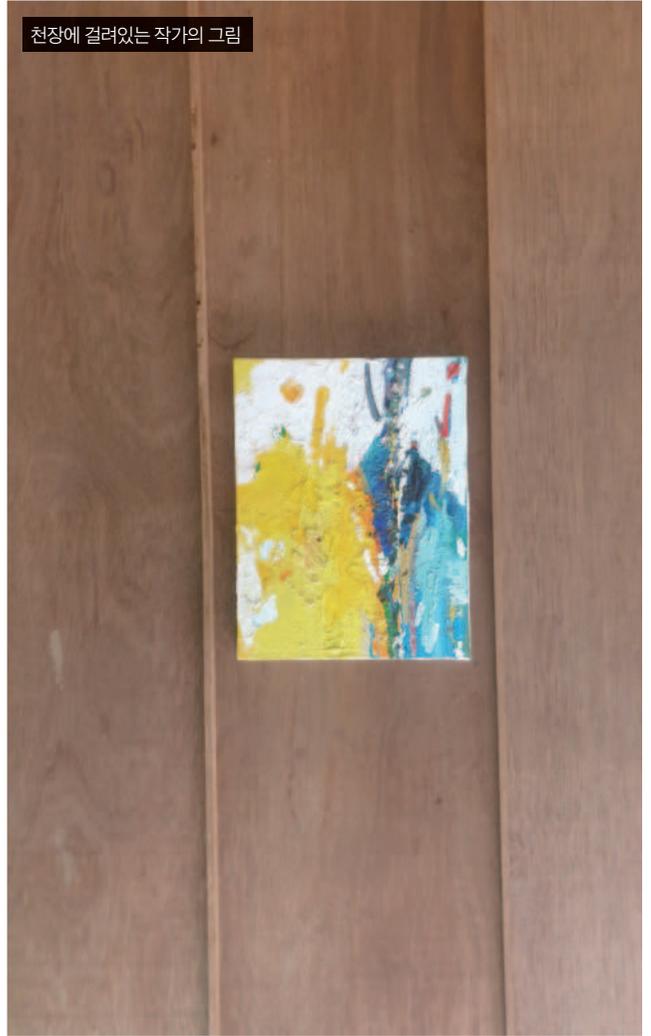
노랑이 로랑으로. 딱 맞아떨어진 느낌! 웃장로랑의 탄생이다.”
네이밍(naming)의 기억을 들고 보니 언어의 유희도 재미있고, 뭔가 주제를 놓치지 않는 작가의 끈질김이나 자존감도 느껴지는 듯하다.



명품 수입 빈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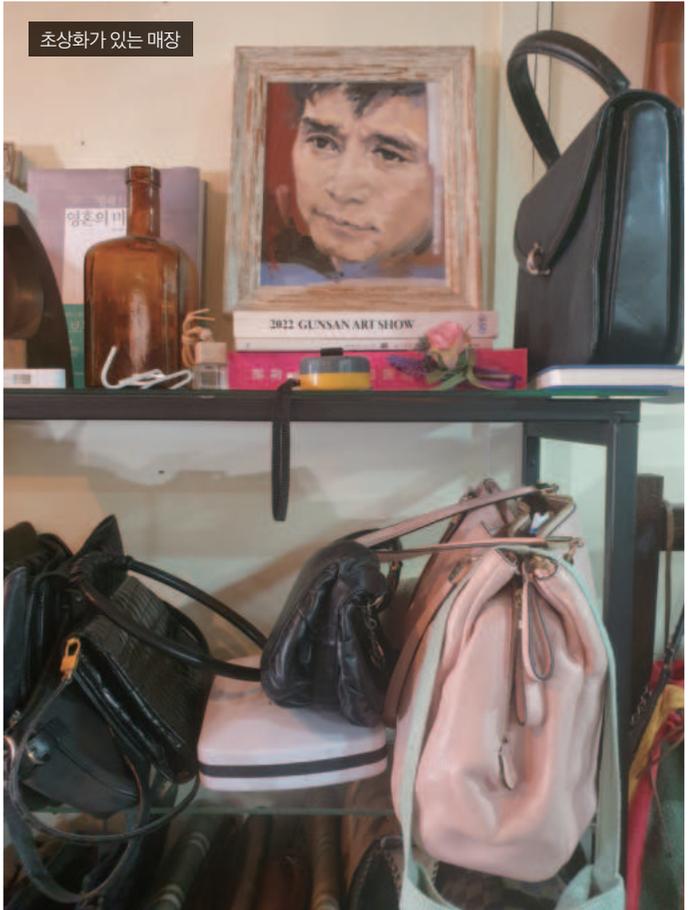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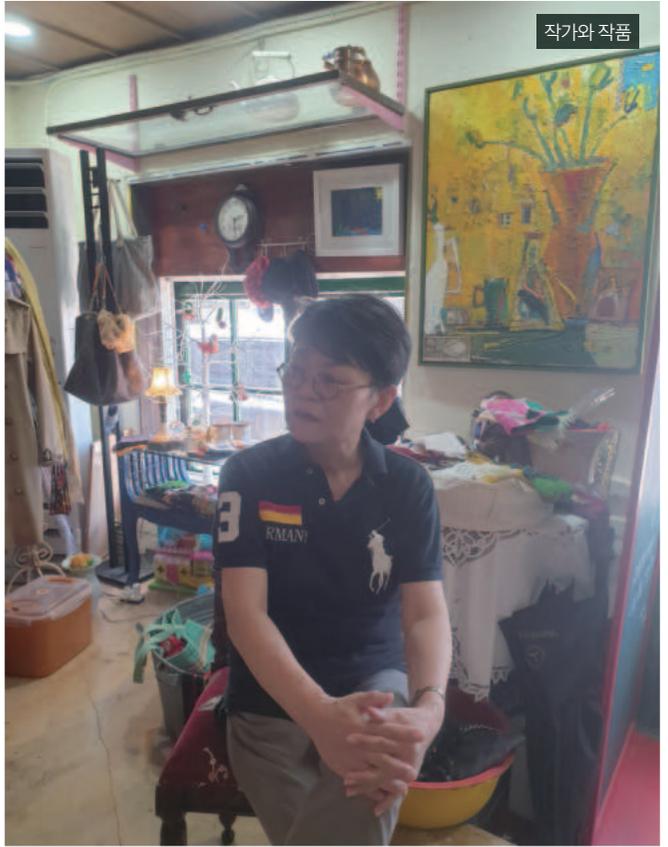
천장에 걸려있는 작가의 그림



‘아웃장로랑’ 안에 그림이 있고...

“다른 곳에서 몇 년 하다가 이곳에 온 지 1년 정도다. 여기에선 많이 활동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논문 준비에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힘들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다. 갈 길이 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군산에서 유일한 전문 빈티지샵으로 가고 싶다.”

“동네 분들이 산책하면서 찾아오기도 한다. 좀 전에 왔던 분은 서울에서 SNS를 보고 찾아오신 고객이다. 이 골목이 좀 다양한 색깔로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 전국을 다니면서 물건을 직접 고른다. 너무 재미있다. 제품마다 필요한 약간의 수선 과정을 거쳐 매장에 선보인다.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진열된 제품)에게 말을 걸고 대화하는 느낌이다. 서로의 시간을 엿보고 나누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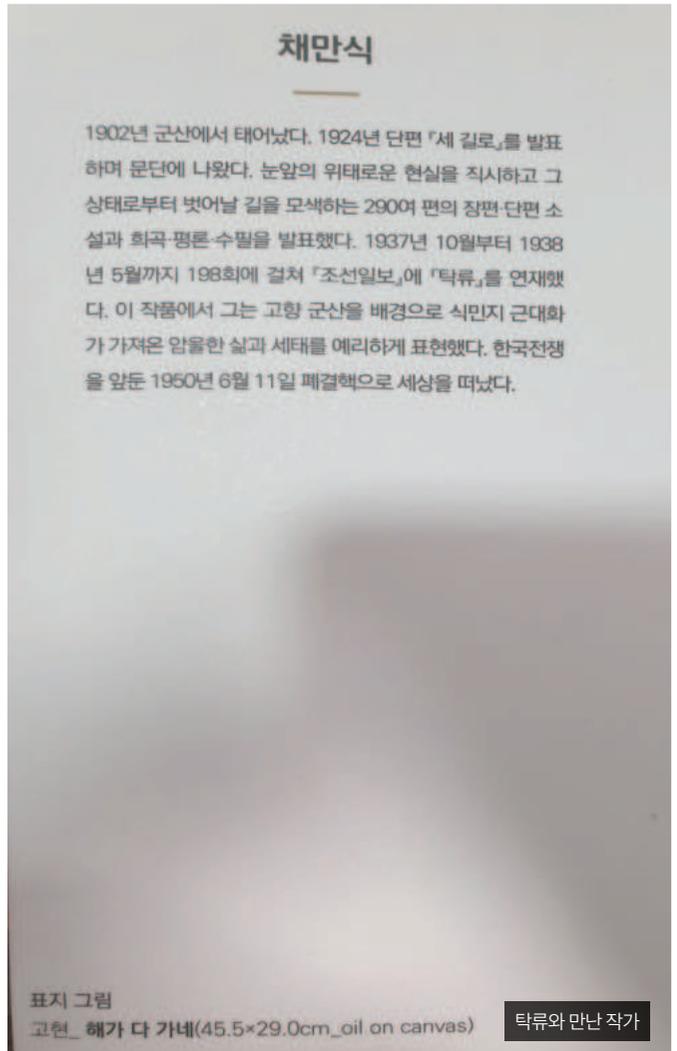


고 작가는 화가로서 꾸준히 작업 중이다.
 중앙대학교 미대 출신이다.
 매일 오전 거르지 않고 그림 작업을 철저히 수행한다.
 2020년 채만식 선생의 장편소설 '탁류' 출판사가 공모한 표지
 그림-'해가 다 지네'-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간을 거슬러 채만식과 고현이, 소설과 그림으로 만난 것이다.
 인연이 무척 흥미로웠다.

“그림을 포함해서 이 공간에서 만나고 마주치는 감정의 소통이
 있다. 전에 녹색을 많이 좋아했다. 표현하기 어려운 색이다. 전
 시를 준비하면서 녹색 물감을 짜서 (붓칠하지 않고) 캔버스에
 발랐다. 순간 많은 감정이 느껴졌다. 그림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
 하고 나를 발견하고, (시대도) 성찰하는 듯하다.”
 그림 이야기를 하면서 더 집중하며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매장 천장에 걸린 작은 그림 한 점이 아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색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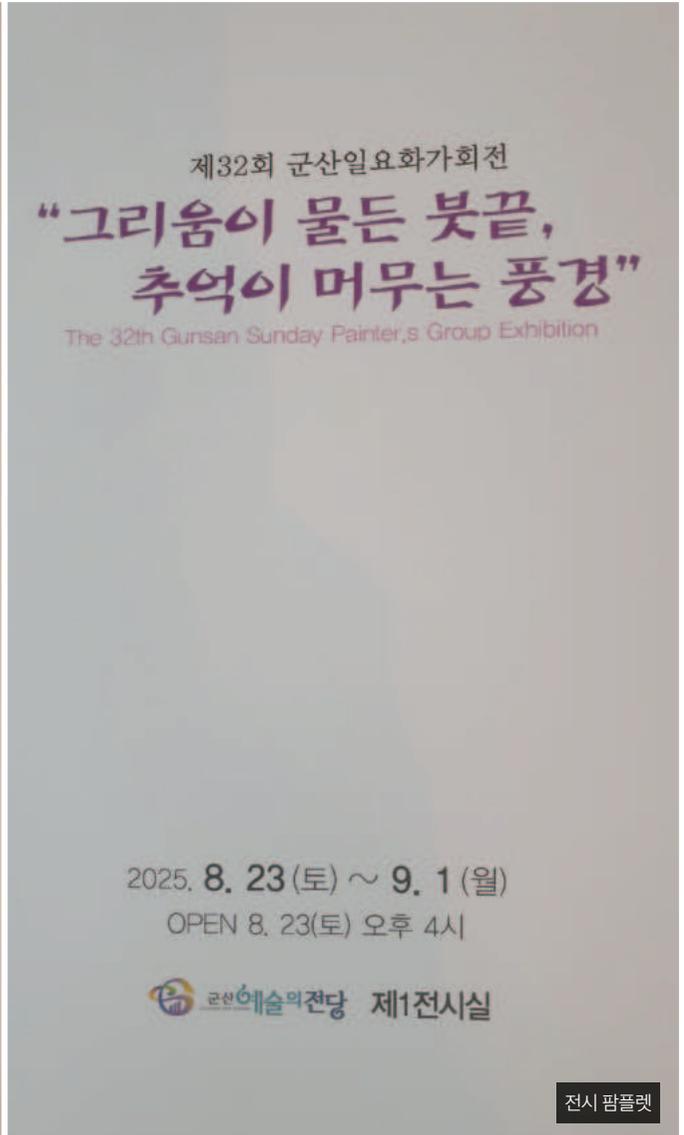


작가의 표지 그림-해가 다 가네



표지 그림
 고현_해가 다 가네(45.5×29.0cm_oil on canvas)

탁류와 만난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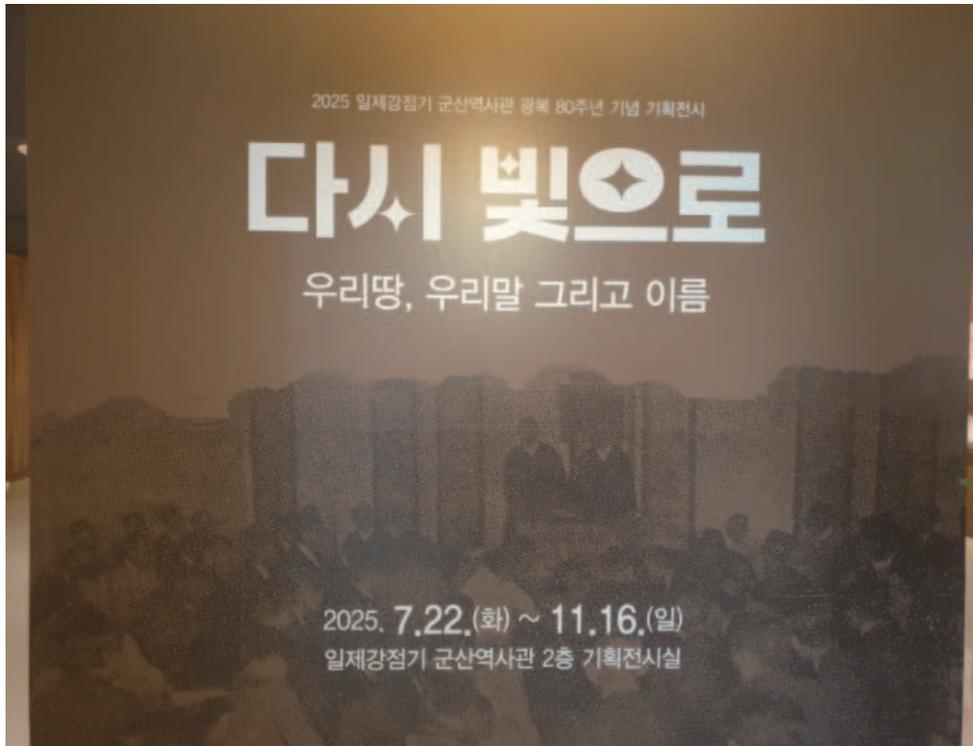


지난 10여 년 동안 서너 번의 개인전 등 여러 전시에 참여해 왔다. 고 작가는 최근 제32회 군산일요작가회전 ‘그리움이 물든 붓끝, 추억이 머무는 풍경’에 그녀의 작품-‘그저’-를 냈다. 9월 1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제1전시실에서 작가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독자들이 관람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유화 초상화는 드물다. 작업했었던 작품 평이 좋았다. 잘 준비해서 개인 초상화전을 하고 싶다. 고현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 명품 빈티지샵 ‘옷장로망’의 주인장, 고현 작가의 절대적인 로망인 듯싶다. 필자가 영화동 거리를 다시 찾을 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나의 로망일 게 분명하다.

옷장로망

|주소 군산시 구영2길 34
|연락처 010-6611-1377



'다시 빛으로'

우리땅, 우리말 그리고 이름
광복 80주년 기념 기획전시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다시 빛으로'-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우리땅, 우리말 그리고 이름.

우리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지도와 한글, 스스로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1910년 나라를 잃고 1945년 광복이 되기까지의 날들.

이 세 가지는 그 시간 동안 가장 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전시 프롤로그 중 일부 인용>

광복 80주년 하루 전 8월 14일 오전.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을 찾았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김수연 학예사께서 전시 안내와 인터뷰를 맡아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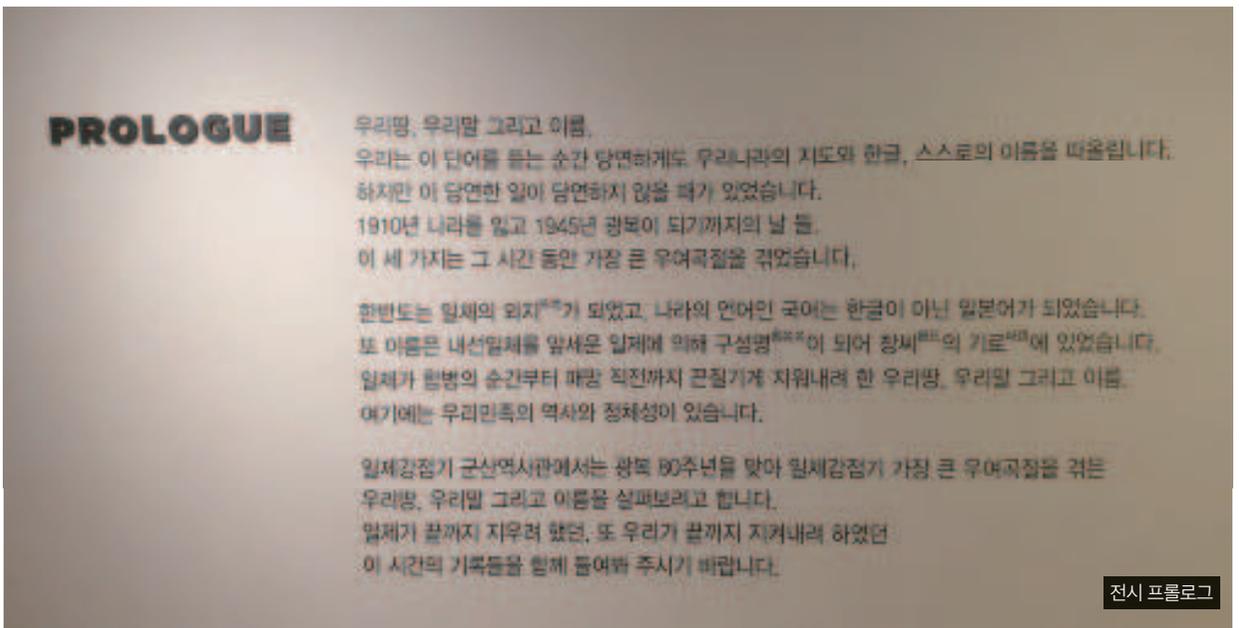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의 기획전시를 준비했다.

‘우리 한반도-외지(外地)가 된 우리땅’, ‘우리 국어-국어가 된 일본어’,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은’ 세 가지 주제로 전시 섹션을 구성했다.”



전시관 입구



전시 프롤로그

근대역사문화 관광과 연계 기획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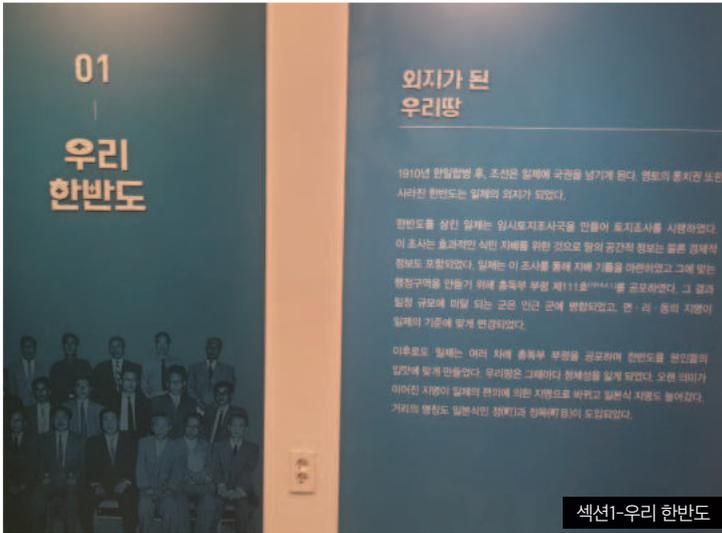
“하루 최대 100여 명도 방문하신다. 군산역사관은 1년 2회 기획전시를 진행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근대역사와 땀 수 없는 도시이고 근대역사박물관, 동국사 등 주변의 근대관광 인프라가 많아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좋다. 기획자로서 너무 감사하다.”

“이번 전시엔 광복의 큰 주제 안에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이야기, 지명 등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 QR코드를 촬영하면 다양한 정보와 노래감상 등 재밌고 유익한 즐길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꼭 찍어서 체험해보세요.”

김수연 학예사의 찐한 관람 팀이다. 2025 광복절은 어느 해와 달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년 일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윤동주-참회록 중 일부 인용>

전시장 입구 안내물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懺悔錄)-창씨개명 5일 전 쓴 시’가 이번 전시의 속뜻과 감상한 심정을 상징으로 말해주는 것 같다. 전시장을 모두 둘러보고 난 다음에도 필자 머리에서 좀처럼 떠날질 않는다.



색션1-우리 한반도



조선, 동아일보 기사



색션1-중앙지명제정위원회 총회 참석자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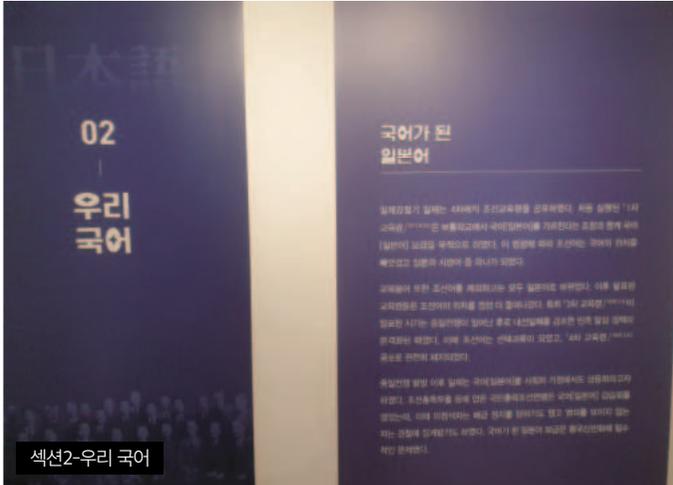
제1색션 - 우리 한반도, 외지가 된 우리땅

강압적인 한일합병 후 일제는 효과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 부군면(府郡面) 통폐합을 진행했다. 우리 지명은 역사적 정체성을 잃은 지명으로 바뀌거나 일제식 지명이 도입된다. 일제의 땅이 자 일제 본토의 바깥 땅이 된 우리 땅 이야기와 지명을 되찾기 위한 선현들의 피 같은 노력이 펼쳐진다.

한일합방 기념엽서, 군산부 구역확장 시가지 지도를 통해 우리 땅과 군산의 이름이 어떻게 침탈당했는가! 알 수 있다. 일본식 거리 명칭인 본정(本町) 행정(幸町) 명치정(明治町) 등이 뚜렷이 확인된다.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도 몇 건 볼 수 있다.

제2섹션 - 우리 국어, 국어가 된 일본어

우리 한글은 일제의 지방어가 되고 일본어는 국어가 된다. 일제는 황국신민화를 위해 국어(일본어)를 보급하고 조선어의 위치를 줄여나간다. 일본군의 얼굴이 노려보는 '일본어 사용 장려 포스터'에서 조선인의 공포와 고통이 직감된다. 섬뜩하다.



섹션2-우리 국어



섹션3-나의 이름

제3섹션 - 나의 이름은, 구성명(舊姓名)이 된 이름

우리의 이름 앞에는 부계(父系) 혈족의 뿌리를 알려주는 성(姓)이 있다. 성은 우리 전통 가족제도의 상징이자 근본이었다. 일본의 씨(氏)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창씨개명(創氏改名)은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씨를 설정하여 이후 6개월까지 신고해야 했다. 내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된 것이다. 저항이 따랐고 차별과 탄압이 이어졌다.

당시 미나미 조선 총독은 창씨개명은 조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강제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친일파 사이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창씨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다.

“윤치호에 대한 전시물에 많은 신경이 쓰였다. 친일파로 알려진 분의 전시물이기 때문에 항의와 문제 제기가 걱정됐다. 그러나 전시한 몇 장의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대면하고 관람객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당대의 시대상을 새롭게 봤다는 분들이 꽤 많다. 이번 전시의 의미와 관람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김 학예사가 조심스럽게, 상기되어 말한다. 이들의 일기를 그대로 옮긴다.



섹션3-약진조선현세도

윤치호의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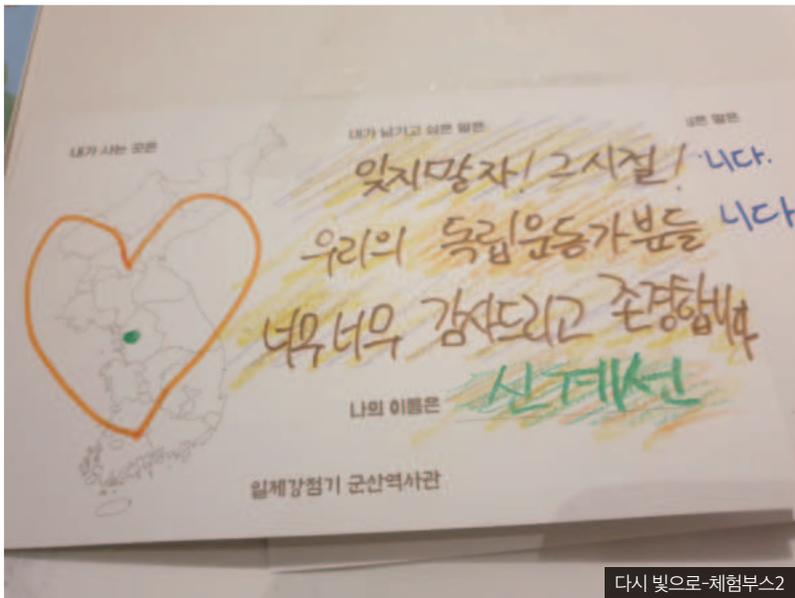
1940. 5. 24. 금요일 흐림.

(중략) 어제 경성을 떠나 도쿄에 간 미나미총독이 이참에 총독직에서 해임되고, 하야시 장군이 후임자로 임명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그러기를 얼마나 바랬으면 이런 소문이 나돌까마는 미나미총독이 지방경찰서, 학교, 관공서 등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이 원성을 산 원인임은 분명하다.

1940. 5. 31.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비.

(중략) 창씨개명에 결사반대하는 유억겸의 말로는, 이광수가 감히 일본에 갈 수 없다고 한다.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창씨개명 한 그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가철이고 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나 일반 사회단체, 기관들도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 번쯤 단체 관람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전시 기간이 11월 16일까지예요. 감사합니다.” 김수연 학예사가 한 번 더 당부한다.



다시 빛으로-체험부스4



‘다시 빛으로’-미래로, 희망으로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잊지말자! 그 시절! 우리의 독립운동가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이들의 손글씨와 ‘나만의 무궁화지도 만들기’가 전시장 마지막 패널에 빼곡하다. 계속 이어지고 덧붙여진다.
 찬란하다. 여기는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다.

일제가 합병의 순간부터 패망 직전까지 끈질기게 지워내려 했던 우리 땅, 우리말 그리고 이름. 여기에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습니다. (중략) 일제가 끝까지 지우려 했던, 또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려 하였던 이 시간의 기록들을 함께 들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프롤로그 중 일부 인용>



관람안내

| 전시기간 2025.7.22~2025.11.16

| 장소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

| 관람시간 오전 09:00~오후 6:00(5:30까지 입장)

| 휴관일 매주 월요일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국사길 21

| 문의 063-467-0815

집단소송으로 치닫는 구)장항제련소 공해 피해 배상 주민대책위원회 박두혁 위원장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지난 1936년 일제가 비철금속 제련공장으로 건립한 장항제련소.

일제 패망 후 정부가 운영하다가 1972년 민영화된 이후 럭키금속 장항공장으로, 2005년에는 LS산전, 2010년 LS메탈로 사명 변경을 거쳐 현재는 LS일렉트릭 소유로 되어있다.

이 제련소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것은 설립 이래 1989년까지 가동된 용광로에서 카드뮴, 비소, 납 등의 중금속이 주변으로 배출됨으로써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 등 정부에서 2009년도 들어 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을 대형 사업자로 선정, 본격적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도부터 천식, 파킨슨병, 만성신장염 등 51개 질환에 대한 제련소 주변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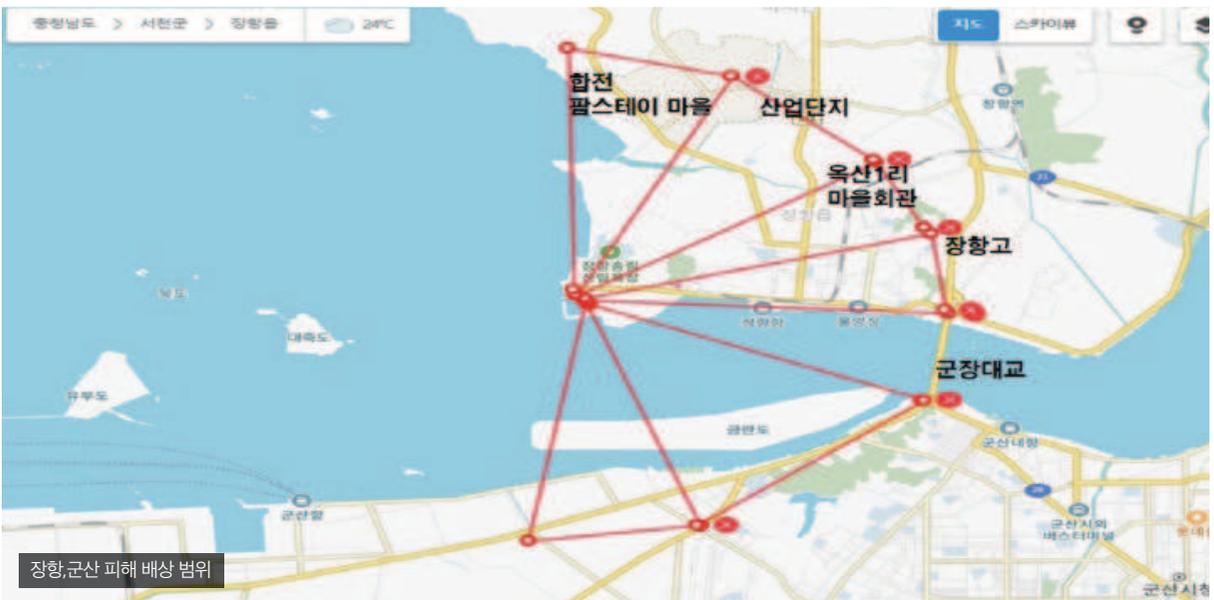
이 과정에서 LS일렉트릭은 서천군, 충남, 환경부 등과 토양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일부 주민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LS일렉트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당시 재판부는 LS일렉트릭에게 최종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각각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함으로써 집단소송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박두혁 위원장

지금의 주민대책위원회 박두혁 위원장은 장항 출신으로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에서 기계공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한때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제련소 인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가 제련소 관련 집단소송 승소 사례를 접하게 된 것은 2022년 12월이다. 당시 박 위원장은 기존의 주민대책위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실상을 접하고 가족 10여 명과 함께 직접 공해피해소송을 제기, 2024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해 범위를 제련소 굴뚝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 거주자로 인정하면서 1인당 500만 원 배상을 명령,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지역의 지인과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월 현재의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박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법무법인 덕수, 광운, 솔등과 협력하여 피해 주민의 소송 참여 안내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장항,군산 피해 배상 범위

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참가안내

1. 거 리 장항제련소 굴뚝반경 4km 이내 거주자
(구 해망동, 소룡동, 산북동 일부 해당)

2. 거주기간 1936년 ~ 2015년 사이, 3년 이상 거주

3.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 거주기간 및 거리 확인
↓ (확인 안될시 추가)

② 주민등록표(구원장) : 아버지
↓ (확인 안될시 추가)

③ 생활기록부(초,중,고)
↓ (확인 안될시 추가)

④ 기타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식서류)

4. 배상 청구액 1인당 900만원 청구

5. 소송 참가비용

① 10만원(법원 인자대, 송달료 포함) → 승소 후 10% 변호사 비용

② 후불제 → 승소 후 25% 변호사 비용

소송 참가 안내문



주민대책위 사무실(신세계 부동산)



주민설명회



소송 추가접수 안내 플래카드

군산의 경우 피해 범위는 제련소 굴뚝에서 4km 반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망동, 소룡동 일부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 박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해신동과 소룡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섬으로써 군산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작년 5월 해신동, 소룡동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10월에 군산 주민 약 1,000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법무법인 광운을 통해 소를 제기, 올해 6월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제1

차 변론기일을 가진바 있고 8월 21일 제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상태로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공해 피해 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올해 11월 말까지 추가 소송 진행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1935년부터 2015년 사이 장항제련소 반경 4km 이내 (장항, 군산 해망동, 소룡동) 거주자에 국한하며 대상자의 경우 그간

의 주소가 모두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사망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모든 참여자는 접수 시 1차 비용 10만원(회비 5만원+인지대·송달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송 참여 접수 중인 박위원장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군산지역 추가 대기 신청자만 2,000여 명으로서 8월 중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접수분은 11월 말까지 최종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장항·군산지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1심 종결 결과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 항소심 판

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피해 주민들이 받게 되는 배상은 신체적·정신적 2종류가 있으며 신체적 피해 배상의 경우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장항 주민들과 동일하게 국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기존 장항 승소 판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 배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 위원장은 일련의 소송을 진행하며 겪고 있는 심경을 이렇게 피력한다. “침묵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장항제련소는 지난 수십 년간 심각한 공해물질 배출, 군산과 장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파괴해온 침묵의 가해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기업과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하며 주민의 배상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제련소에서 배출된 중금속 유해물질로 인해 폐질환, 피부병, 후두암, 영유아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이미 원인을 모른 채 사망한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 고통에 시달리는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박 위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잇는다. “그럼에도 그간 국가는 이를 방치했고 기업은 묵살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정의 회복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로 생각되는 주민의 경우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2025. 11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 대열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차량 앞에서 박 위원장

주민대책위 홈페이지 : WWW.janghang.net
 사무실 : 군산시 소룡동 사거리 은적사 입구(신세계부동산 내)
 상담 문의 : 박두혁 위원장 010-4940-2020



'촛불을 넘어 빛으로'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강수정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군산토박이 - 지역 발전 관심’

“군산 토박입니다. 옛날 옥구군 미면에서 겨울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쪽 군산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어요. 현재는 산복동이죠. 학교는 문창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추운 겨울날 칼바람을 맞으며 한 시간 정도 걸어서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강수정 씨는 현재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수석 부위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정당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의 첫 당선을 위해 발로 뛰면서 자연스럽게 정당인이 되었다. 평소 일차적 인간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소통에 적극적이며 사회활동을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예요.”라며 밝은 미소를 짓는다.

“평소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곡동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주차장,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유치에 위에 지곡동 아파트 대표회장들과 함께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현재는 예가아파트에서 입주민대표회의 부회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어요. 전에 회장과 감사도 역임하며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녀의 열정이 느껴졌다.

군산촛불행동, 인생의 자부심

최근 그녀의 당찬 모습을 볼 수 있는 큰 변곡점이 있었다. 2022년부터 ‘군산촛불행동’에 참여하며 매주 토요일 롯데마트 사거리를 찾았고 띄약벌 아래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바로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에 맞서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해 매달 서울 시청광장으로, 광화문으로 달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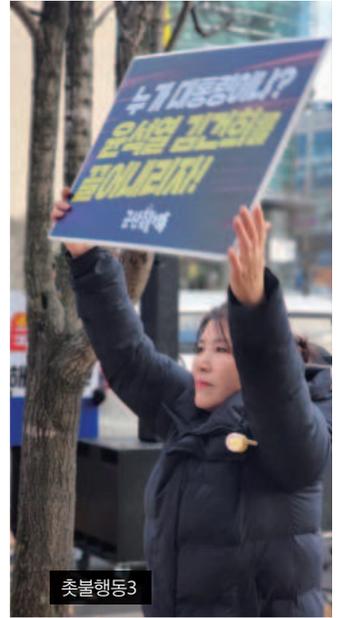
“계엄과 탄핵이라는 국가적 환란에 맞서 (모두가) 큰 고비를 넘겼잖아요. 매번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큰 대의를 위한 작은 실천에 따른 결과가 좋아 제 인생의 한 대목으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함께했던 동료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촛불행동에 참여한 소감을 늦게나마 당당히 밝힌다.



촛불행동



촛불행동2



촛불행동3

다양한 사회활동-봉사와 연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꾸준한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관심이 많아 작년부터 ‘군산플로깅’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회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쓰레기양이 엄청 많아 깜짝 놀랐다. 특히 선유도 등 해안가엔 장마에 떠밀려온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나 폐어구가 쌓여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최근에는 군산대학교 학생들과 연대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와 연대의 의미를 매번 다지고 있어 몸은 좀 힘들지만 늘 웃음으로 마무리해요.”

그녀는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많다. 현재 ‘미래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차후에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단체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 ‘군산평화소녀상기념사업회’, ‘한국차문화 군산차인회’에서 각각 기획과 ‘전통차 겨루기대회’ 기획 실무를 맡고 있다. 늘 새롭고 알찬 내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적극적으로 부지런한 그녀의 모습을 행사 현장에서 빠짐없이 볼 수 있다.



군산플로깅1



봉사활동



군산플로킹2



봉사활동



군산미래요양보호사 교육원 활동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활동



민주당 군산여성위원회 활동



학교수업 진행



예가산악회

함께하는 공동체-직접 현장에서

“늘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관심이 사회(정치)활동에 참여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호기심이 많아요. 군산차인회 스승님(송미숙 시의원)께서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동경했죠. 자연스레 나도 저렇게 당차게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롤모델 같은 분이시죠.” 스승님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존경심을 표했다.

“아파트에서 입주민대표자회의 활동과 여러 단체활동을 하며 관심이 더 커지고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아파트 시대

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각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싶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어요. (지역의) 다문화 가족이나 난민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요. 소수자들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라 국회의원이 할 일이겠지만 지역에서도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군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타지에서 오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밝힌다.

차(茶)나무의 뿌리 같은 사람

“차나무의 뿌리가 되어야겠다. (차나무 뿌리는 직근성이라 뿌리가 하나로 되어있다. 그리고 차나무는 옮겨 심으면 죽을 확률이 높다.) 강직함과 강인함, 군더더기 없이. 결가지 없이. 소신 있고 변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정치인으로서 많은 분이 계시지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늘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만 하지 않고 행동도 함께하는 사람. 어른 김장하 선생님처럼 이 옷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이 좋아서 ‘우민아, 부르면 예하고 달려간다.’는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님처럼, ‘수정아, 부르면 예하고 달려가는’ 강수정이가 되고 싶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과 열정이 넘치는 그녀가 촛불을 넘어 불꽃으로 환하게 빛나길 독자들과 함께 기대해본다.



프로필(약력)

현 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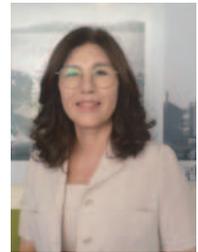
-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

학력 및 자격

- 교육부장관 학위(학위 인정) 사회복지학 학사(사회복지학 전공)
- 교육부장관 학위(학위 인정) 행정전문학사(사회복지학 전공)
-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민주시민교육 수료증
- 사회복지2급(교육부장관)
- 역사기행지도사 자격증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수 자격증
- 전통차예절지도사

주요 경력

- 군산시 수송동 자치위원회 위원
- 군산플로깅 공동대표
- 한국차문화 군산차인회 재무국장
- 군산평화의소녀상기념사업회 총무국장
- 군산미래요양보호사 교육원 행정실장
- 한국도로공사 국민소통단 위원
- YMCA(평생교육원) 민주시민강사, 다도인성교육강사(군산서해초등학교)
- 전) 쌍용예가APT 입주민대표자회의 회장, 현)부회장





풍요 + 자연에 몰들다 / wave+자연에 몰들다 / 146X 65/ oil on canvas/2023

풍요+자연에 몰들다

이동근 초대전

LEE DONG GEUN SOLO EXHIBITION

2025. 07. 25. ▶ 2025. 09. 30.

노블한방병원

갤러리 노블

오픈 2025. 07. 25. 13시 30분

장소: 군산시 문화로 153 노블한방병원 2층

작품 구입문의: (사)어름예술문화원 T.010-6371-7174

서양화가 이동근 기획초대전

- 노블한방병원 갤러리노블

글 | 이영미
사단법인 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군산의 한 여름, 노블한방병원 외래 라운지에 들어서면 시원한 바다빛과 싱그러운 과일빛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번 기획초대전의 주제는 '풍요 + 자연에 몰들다'.

전시 공간을 채운 작품들은 자연이 주는 넉넉함과 그 속에서 길어 올린 작가의 시선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전시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애호가들은 작품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색과 빛, 질감이 빛어낸 '물뭍'의 순간을 느낀다.

전시의 중심에는 크기와 구도가 다른 세 점의 '파도'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다. 정면 중앙의 대작은 힘차게 밀려오는 물결과 투명한 수면 아래 드러나는 바닷속의 깊이를 섬세하게 담았다. 양옆의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시선에서 바다를 바라본다. 한 작품은 장대한 파도의 격정을, 다른 작품은 햇살에 부드럽게 물드는 잔물결을 표현한다. 세 작품이 함께 놓이면서 하나의 연속된 해안 풍경이 완성되어, 관람객은 그 안에서 자연의 호흡과 회복의 에너지를 체감하게 된다.

풍요를 담은 정물과 자연의 빛

이동근 화백의 정물화는 주제 '풍요'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탐스러운 자두와 포도, 붉은 딸기를 그린 작품은 표면의 이슬방울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어, 갓 수확한 과실의 싱그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자연에 물들다'는 장미 작품과 백자에서도 드러난다. 햇살을 받은 장미꽃은 유리병 속에서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백자는 은은한 색감과 세월의 결이 스며든 표면으로 단아한 품격을 전한다.

노블한방병원 갤러리노블 기획초대전

이번 전시는 노블한방병원(원장 최연길)의 철학 "치료를 넘어 회복으로"와 맞닿아 있다.

최연길 원장은 "의료와 예술은 모두 사람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며, 병원을 환자의 치료 공간을 넘어 정서적 안식과 문화 향유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외래 라운지와 복도에 걸린 작품들은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병원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시각적 휴식을 제공한다.

특히 파도와 과일, 꽃, 백자는 '풍요'와 '물들'이라는 주제를 공간 전체에 은은하게 번지게 하며, 병원의 치유 철학을 시각적으로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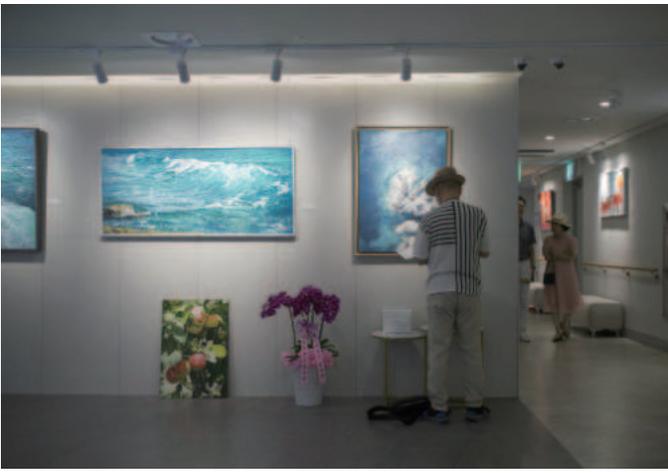
전시 현장 스케치

개막식 당일, 전시장에는 환자와 보호자, 지역 인사, 예술 애호가들이 함께 모였다.

파도 작품 앞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고, 가까이 다가가 붓터치와 색감의 미묘한 변화까지 살피는 이들이 많았다.

과일과 꽃 장식이 마련된 환대의 테이블은 전시장에 온기를 더하며, 병원이 아닌 작은 해안가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가 프로필

학력:군산제일고 졸업 / 원광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전시:개인전36회,2인전2회,4인전1회,아트페어31회(영국,필리핀,서울,부산,송도,울산,전주,군산),단체전370여회

주요 수상

2022 세계문화교류 '대상' 수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백범 김구 기념관)

2020 대한민국 창조문화예술 '대상' 수상 서울 시의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14 제3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특선'(한국미협)/2008 제2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입선'(한국미협)

2009 제41회 전라북도미술대전'대상'(전북미협)/2011 제43회 전라북도 미술대전'우수상'(전북미협)

2010 제6회 전국 온고을미술대전 종합대상 (전주미협)/2008 제3회 대한민국 글로벌 미술대전 우수상

2019 아트군산 공로상(김대중 컨벤션 센터)/2025 전주 지방법원 감사패 중국문화원 공로상

2015,2020 군산예총 공로상

심사 경력: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양화 2차 심사, 전라북도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 충남 미술대전, 세계평화 미술대전, 남농 미술대전 운영 및 심사, 섬진강 미술대전, 벽골 미술대전

현직 및 활동: 한국 미협 회원, 군산구상작가회 회장,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전북환경미협 부지회장, 전미회, 아트워크, 자연과 감성전, 전업작가회, 전북환경미협회원, 전북 크리스찬 작가회, 오픈갤러리 소속작가, 아트버디 제휴작가

전직: 군산미술협회 지부장 역임, 한국미협 서양화분과 이사, 2022 군산아트쇼 조직위원장

현재 진행 중인 전시 안내 - 군산 우체통거리 Rio Cafe: 3인 기획전 ~ 8월 31일 까지
 - 군산 피부의원 필스토라: 상설 전시 ~ 9월 20일 까지

이번 갤러리노블 기획초대전은 '풍요'와 '자연에 물들다'를 주제로, 세 점의 파도와 과일,꽃, 백자등을 중심으로한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인다. 관객들은 자연의 빛과 색, 질감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 한켠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이동근 화백은 자연이 주는 빛과 색,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계절의 온도를 작품에 담았다. 그는 관객이 그림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파도의 호흡을 따라 숨을 고르고, 과일과 꽃의 빛깔 속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길 바란다.

“그림이 전해주는 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시간과 마음입니다.
 이 전시가 잠시나마 관람객의 하루를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랍니다.”
 - 노블한방병원 최연길 병원장



선유도에서 배롱나무 꽃으로 치장한 건시문(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옥구향교의 뜨거운 여름, 배롱나무꽃에 물들다

「참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는 군자(君子)의 좋은 짝이로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글 | 박세원
 hamp38@hanmail.net

배롱나무꽃의 웅장함을 본 순간 『시경』 관저와 구약성경 아가의 시구가 떠올랐다.
 옥구 향교를 찾은 날은 가을의 문턱 ‘입추’가 바로 지난 ‘말복’날이었다.
 초록색 잔디 마당에 서 있어서 더 선명한 꽃물을 들었을까. 아침저녁 제법 선선했던 고택 사이로 붉은 배롱나무꽃들이 새벽을 물들이고 있었다.
 꽃들은 군자를 기다리는 아가씨처럼, 사론의 꽃 수선화처럼, 설레는 가슴 부둥켜안고 오백 년 돌담을 감은 채 기와지붕 위에 길게 목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남은 여름을 갈무리하려는 듯 스치는 작은 바람에도 꽃잎이 흔들렸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진작가들의 셔터 소리에 놀란 꽃들이 기지개를 폈다.
 이곳 배롱나무에는 ‘조상들께서 하나를 알아서 셋을 실천하라’며 심어 놓은 은근한 뜻이 숨어 있었다.

전통문화에 취하고 꽃에 취하고

옥구향교를 방문하기 전에는 향교가 유교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구태의연한 사상일 것이라 생각했었다.

찾아간 서원은 선현의 정신과 뜻을 되새겨 학문과 덕행을 닦는 곳이며, 동시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유교의 유(儒)자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바라며 기다려 실행해서 쓰다(수需)라는 것이다.

옥구향교는 조선 태종 때 옥구읍 상평리 광월산에 잡았다.

산은 작고 낮지만, 큰 들판 마루가 북돋으니 자꾸 드높아지는 산세이다.

바로 조상들이 광풍제월(光風霽月)이라 하여 후손들이 풍류 따라 배우고 익히며 자꾸 커가는 모습을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곳에는 ‘노장용 전교’를 비롯한 60명 남짓한 유림(유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성전에서 봄가을로 두 차례 올리고 문창서원과 현충단에서는 한 차례씩 제향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전국에 있는 향교 중 우리 옥구향교가 유일하게 국조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고 봄에는 어천제(御天祭)를, 가을에는 개천제(開天祭)를 올리고 있다.



노장용 전교장

이에 절실한 예절은 현 ‘노장용 전교’가 보유하고 있다.

오랜만에 이른 아침 제 때문에 일찍 나오신 전교장님을 직접 보니 전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보유한 명인으로 지정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그렇게 된다면 오랜 기품을 유림들에게 물려 줄 전통으로 기억될 것이다.

향교에서 음력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은 문을 열어 분향례를 올



향교일요학교에서 뛰노는 아이들

린다. 마침 내가 방문한 날도 초하루 날로 전교장을 중심으로 분향례 올리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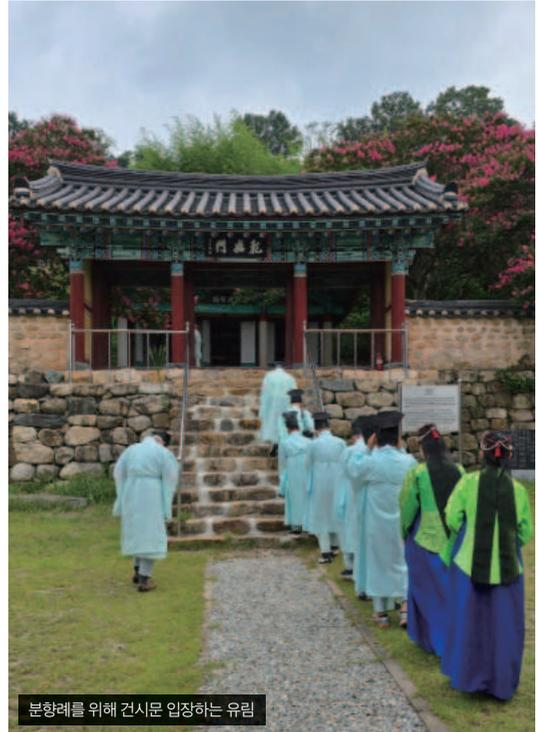
복장을 갖추고 예를 표하는 의식이 매우 경건하고 유려한 향내가 났다.

봄, 가을에는 ‘향교일요학교’가 열린다.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재잘재잘 마당을 거닐며 전통놀이와 예절을 배운다.

떠들썩한 아이들도 경내에 들어서면 몸가짐이 달라진다.

이때의 경험은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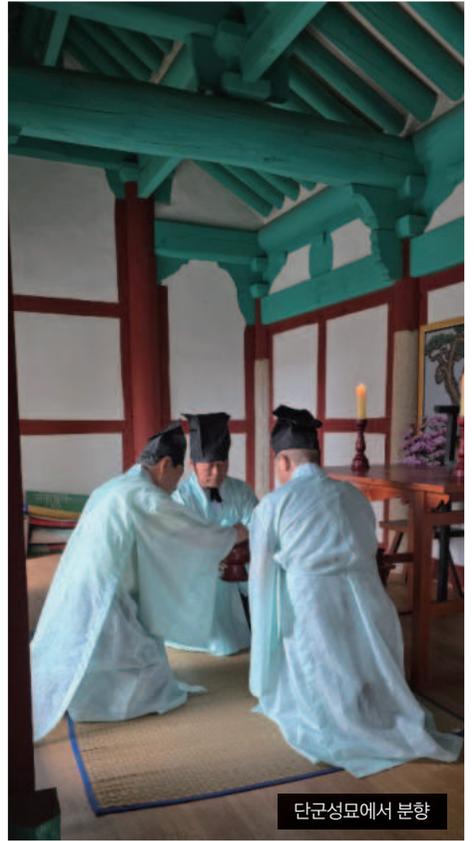
분향례를 위해 건시문 입장하는 유림



향교일요학교에서 수업받는 유치원 원아들



단군성묘에서 절하는 유림



단군성묘에서 분향



대성전



김옥중 유도회장

향교에서 만난 유도회장 김옥중 님
 “생을 마치는 날까지 조선왕조실록을 읽어야겠다.”

김옥중 유도회장님을 보니 기품 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분이였다. 유도회장님이 향교에 입문한 것은 5~6년 전이었다. 그는 교단에서 퇴직할 즈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평소 책임기를 좋아하고 글쓰기에도 관심을 보이며 ‘군산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평생 읽겠다는 왕조실록 첫머리부터 눈물로 읽다가 마지막 순종 조에서 통곡하며 마쳤다. 안타깝게도 조선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읽는데 딱 5년이 걸렸다.

책과 씨름하다 보니 재래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재미나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공자 제자 ‘자하’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혼자 지내다가 눈이 멀어졌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더구나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며 절실한 것은 모든 주석이 사서오경을

찾지 않고는 읽어낼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은 김옥중 유도회장의 향교의 맥을 잇기 위한 기초 수업이었다.

‘단군성묘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현재 옥구향교는 군산시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옥중 유도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향교를 위한 시급한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단군 성묘를 문화재로 지정받고 싶은 간절함이였다. 명륜당 남쪽 문 또한 전통 한지 창호로 바꾸고 싶어 했다. 마침, 자천대(최치원) 문이 개방되어 있었다. 자천대를 기리는 백일장을 열어 자라나는 세대들과 문화적 소통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배롱나무와 함께 25. 8월, ‘디카시 대회’가 열린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전통이란 오래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향교를 가꾸기 위해서 60여 명의 유림과 함께 새로운 꿈을 가꿔나가고 있다.



대성전 배롱나무 꽃(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대성전(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명륜당 배롱나무꽃(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문창서원(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지역 선현을 섬기는 옥산서원(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최치원이 뛰어 놀았다는 자천대(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배롱나무꽃의 화무를 '이준재' 사진작가 사진에 담아

옥구향교 배롱나무꽃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 온 작가가 있었다. 군산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던 사진작가 이준재 님이다. 퇴직 후 사진에 빠져 새벽이든 석양이든 구름만

떠도 달려갔다. 8년 전부터 사진과 인연을 맺은 뒤 하루도 쉬지 않고 촬영했다. 욕심만 큼이나 사진의 결이 남달랐다. 향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릴 적 동네 향교에서 놀았던 기억 때문이었다. 매년 사계절 옥구 향교를 촬영하고 있다. 특히 배롱나무꽃이 만개 한 여름, 향교 사진에 애정을 듬뿍 담았다.

르네상스 미술 - 3. 북유럽 르네상스

르네상스 미술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되어 로마와 베네치아에서 전성기를 맞으며 유럽 각지에 영향을 미쳤는데, '종교화'만큼은 종교개혁이후 쇠퇴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르네상스 완숙기에 이르러는 북유럽만큼은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를 포함하여, 지역에 맞는 종교화로 재해석하며 기독교의 순수 열정으로의 회귀를 그려낸 '풍속화'와 자연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풍경화'로 발전 하였다.

이러한 북방 르네상스 시기 미술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벨기에의 북부인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합친 지역 '플랑드르'였다. '플랑드르 화풍'은 인접한 독일과 스페인으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북유럽 르네상스는 크게 '플랑드르 르네상스'와 '독일 르네상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곳의 화가들은 그림을 현실 세계의 반사체로 생각해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사실적 묘사를 원했는데, 이것은 북유럽에서 유화 물감이 발명됨으로써 표현이 극대화 되어졌다.

대표적 예술가로는 초상화에서 사실적 묘사를 보여준 플랑드르의 '얀 반 에이크'와 독일의 '한스 홀바인', 지역에 맞는 종교화를 그린 '히에로니무스 보스', 사실적 자연 풍경을 그린 '브리헬', 사실적 판화 분야를 개화시킨 '알브레히트 뒤러'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북유럽의 르네상스 대표주자 5인의 작품을 소개하겠다.

1.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1434년. 런던 국립 미술관

유화를 발명하였으며 유화를 이용한 '플랑드르 화풍'의 사실주의의 대가이다. 또한 초상화 장르의 첫 주자이기도하다.

네덜란드에 온 이탈리아 상인 아르놀피니와 그 신부의 결혼식인데 사실적 묘사를 통해 북유럽 르네상스 특징을 잘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 한다. 유화를 사용하여 사물 표면의 외양과 질감을 정확하게 묘사하며, 자연스럽게 퍼져있는 빛의 효과를 연출하였다.

2. 한스 홀바인



'프랑스 대사들', 1533년. 런던 국립 미술관

16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독일 화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 화가로 소개된다. 사실적 묘사에 중점을 둔 '플랑드르 화법'과 균형, 명암 대조, 조각적인 형태, 원근법이 녹아든 이탈리아 화풍의 결합을 보여주는 화가이다.

한때 종교화를 금기시하는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어려웠지만, 영국 헨리 8세의 궁정 화가가 되면서 초상화가의 실력을 인정 받아 명성을 쌓아갔다.

홀바인은 뒤에 소개하는 뒤러와 같이 정밀한 묘사하고 있지만 뒤러에서 보이는 긴장감과 달리 이탈리아적인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묘사를 하였다. 또한 인물 뒤에 즐비하게 나열해 놓은 물건들은 그들의 교양을 나타내기 위한 북유럽 미술가들의 암시적 방법 이었다고 한다.

3. 히에로니무스 보스

네덜란드 화가인 보스는 화풍에는 다른 표현으로 해석된 종교 화가 재구성되어 있다. 그만의 독특함은 20세기의 초현실주의 예술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비현실 세계의 환상과 쾌락, 풍자로 가득한 그의 그림을 들여다보 노라면 내 안의 위험성에 경고 하는듯하다. 그로데스크한 기괴함이 있는 수많은 상징과 알레고리 속에서 인간을 향한 신약적 교훈이 숨은 그림 찾듯 내포 되어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괴한 괴물들은 훗날 후배 미술가들을 통해 즐겨 쓰게 되는 이미지로 변신하게 되며 예술의 새로운 자산이 되었다.



‘쾌락의 정원’. 1500년.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4. 피테르 브뤼헬



‘눈 속의 사냥꾼’. 1565년. 빈 미술사 박물관

16세기 플랑드르를 대표하는 풍경 화가이다. 브뤼헬은 평범한 농부의 일상에 대한 풍경을 그렸지만 보스의 허무와 풍자적 비유에 영향을 받아 그의 작품 속에는 보스의 세계가 녹아있다. 그 예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농부의 모습을 작고 익살스럽게 묘사하는 등 아름답기만 하지 않으며 즐거운 일상의 모습을 통해 프랑드르의 새로운 풍속화를 개척하였다. ‘눈 속의 사냥꾼’은 계절별 연작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원근법을 그대로 사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알브레히트 뒤러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 자화상’. 1500년.

원헨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

▶‘목시록의 네 기사들’. 1497년~1498년. 목판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보여준 혁신적 요소와 북유럽의 사실주의가 잘 결합된 ‘르네상스 인간’이라 불린다.

뒤러는 북유럽 독일을 대표하는 르네상스 화가이자 판화가이다. 목판화와 동판화를 정밀하게 작업 했으며 그의 신앙과 자부심이 들어간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도 유명 했지만, 그 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판화가 한 몫 하였다.

이전의 판화는 단순한 색감 때문에 예술적 가치에 주목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뒤러의 판화에 세밀한 질감과 명암이 표현 되면서 색채가 있는 그림 못지않은 작품으로 평가 되고 있다.

‘목시록의 네 기사들’은 당시 교회의 타락과 흑사병, 농민 전쟁에 대한 뒤러의 사회적 시각을 담고 있다.

이렇듯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분리해서 주목할 만큼 주요한 특징이 발전 하였으며, 오늘날 후대의 화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감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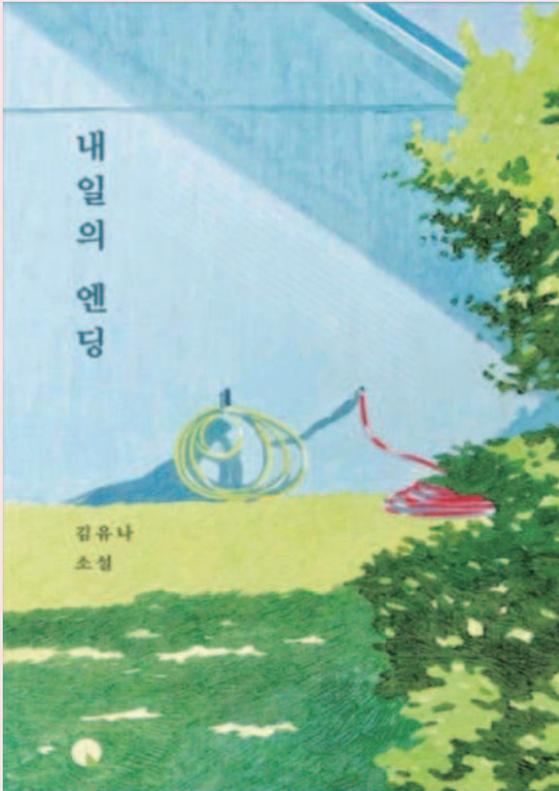
북유럽 르네상스는 17세기로 걸음을 떼며 ‘바로크 미술’로 다가가고 있었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그래도 희망!

김유나. 『내일의 엔딩』 창비, 2024.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은 ‘탄생’(birth)과 ‘죽음’(death)이라고 한다. 모든 인간은 이 사바세계와 시절 인연을 맺고서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 나이 들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생애 서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점에서 그 명제는 적실하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운명이자 숙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학이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는 몽테뉴(1533-1592)의 통찰은 묵직한 울림을 자극한다.

아무래도 나이 탓인지 요즘 들어 부쩍 죽음에 대해 자주 그리고 많이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마음대로 뜻대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비참하지 않게 그리고 오래 끌지 않고 생을 마감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여 두 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생을 마감했으

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소환한 책이 김유나 소설가의 『내일의 엔딩』이라는 경장편이다.

이 작품의 서사 주체이자 초점인물로 기능하는 인물은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 자경이다. 자경은 자신을 출산한 직후 자궁 출혈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한다. 대책 없을 정도로 선량한 성격과 온순한 성품으로 인해 학생들에게서마저도 무시당하는 아버지에 대해 청소년기 특유의 불만이 많았던 자경은 살가운 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자경은 퇴직 후 화불단행에 설상가상으로 돈가스 가게를 차렸다가 망한 데다 절친에게 사기를 당한 후 급격하게 건강을 상한 아버지가 ‘뇌 혈관 폐색’으로 쓰러진 후 “작살내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일종의, 지긋지긋한”(34면) 6년간의 간병 생활을 도맡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경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지쳐간다.

게다가 아버지의 투병 기간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빛까지 지게 되는 자경은 근무 조건보다는 연봉을 더 우선하면서 외국계 종합홍보대행사에서 국내종합홍보대행사로 직장을 옮기게 된다. 거주지 또한 오피스텔에서 빌라 원룸으로 옮기고, 사채에다 카드사 리볼빙을 쓰며 대출 또한 조건이 좀 더 나은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반복하며 힘겨운 날들을 견디어나간다. “슬픔과 고통과 카드값은 자경을 비껴가는 법이 없는”, “그래서 산다는 건 희망도 절망도 아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은 세상의 규칙일 뿐이고, 신에게는 아무런 의도가 없다”(42면)는 자조와 냉소로 충만한 다이어리의 글들은 “대전의 병원을 빠져나와 전주의 고향 집까지 차를 몰고 가 쓰러져 잠들었다가, 빈집의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시 차를 몰아 서울에 도착”(52면)해서 직장 일을 반복하는 당시 자경의 고단한 일상과 분투의 시간들을 선명하게 인화한다.

아버지의 병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구분된 회사 일감과 외주 일감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캘린더와 스케줄 어플의 시한”(50면)에 맞춰 생활해야만 하는 자경은 “살아본 결과 미래란 행복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 쉴 틈 없이 닦쳐오는 것”(50면)이라는 생활 철학을 습득하게 된다. 그 연장선에서 자경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자신을 끌고 간다

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마흔 하나의 나이에 응현과 인연을 맺은 후 2년 동안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선뜻 결혼이나 동거, 그도 아니면 이별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강박적으로 지키는 것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는 6여 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고단했던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저승의 세계로 떠나간다. 임종 직후 “양손으로 아빠의 머리칼을 빗질해 넘기며 아직 따뜻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서 자경이 던지는 “잘 가, 아빠.”(52-53면)라는 자경의 마지막 인사말은 나를 한동안 먹먹하게 했다.

6년 동안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빈소에서 외주 일감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주말도 없이 일을 했지만 짙어진 빛으로 인한 압박. 대학 시절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영화감독의 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직장의 업무에서 오는 소외.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성장 과정의 추억으로 무궁무진한 장소성으로 충만한 고향집의 매각에서 오는 상실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좀처럼 진척이 없이 주변만 맴도는 응현과의 관계로 인한 고민과 갈등 등, 자경이 처한 상황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갇혀 있거나 막다른 골목이나 벼랑 끝에 몰려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도움을 받을, 아니 도움을 청할 마땅한 사람조차 하나 없는,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한 처지로 내몰린 상황은 자경으로 하여금,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들른 고향집에서 외로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멀어질 것만 같은 게 삶이라면 더는 이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마저 들”(130면)만큼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에도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공존하는 법. 그리고 항상 죽으라는 것은 없는 법. 생의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곤경에 처한 자경에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일기는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대학 졸업 후 떠난 고향집의 자경이 방을 자신의 서재로 바꾼 곳에 아버지가 남긴 B5 스프링노트 스몰여덟권의 일기(2009년 2월 1일짜)에는 대학 시절 영화 감독을 꿈꾸며 마지막으로 연출한 영화인 『소설』(小雪)에 대한 감상이 담겨 있다. 그와 함께 방 한 곳엔 ‘튀는 것을 억지로 이어 붙이고 어렵게 찍은 신이라도 들어갈 곳이 없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 완전히 망해버린 최종본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영화제에는 자신이 보기도 부끄러워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출품은 하지도 못하고 제작 후 늦은 뒤풀이 자리에서 다시 만난 몇몇의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나누어준(124면) 영화 『소설』의 CD 한 장이 놓여 있다. 문제의 그 영화는 당시 단편 시나리오 제작 지원금 3백만 원에 애숙 언니와 표다르를 비롯한 주변 동료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의지한 자경이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무작정 영화 제작에 덩벼들어 완성한 영화이다.

아버지 서찬수 특유의 비장한 문체에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넘기던 자경은 2009년 2월 1일의 일기에서 “자경이가 감독한

영화 소설(小雪)을 보았다. 자경은 예술수업을 통해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뛰어넘어 인생의 진리가 담긴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님이 된 것이다. 아아, 인간을 거어이 살아가게 하는 소중한 빛은 언제나 멀고 희미한 곳에 있다.....이 한 장의 CD에 담긴 자경의 고뇌를 가보로 물리리라 결심한다...”(98-99면)

자경에게 참담한 실패로 끝난 습작 영화 『소설』은 아버지 서찬수 에겐 인생의 진리가 담긴 빼어난 수작의 예술 영화이고, 자경은 중도에 포기한 영화 감독 지망생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장의 반열 못지않은 훌륭한 감독이다. 아버지 서찬수가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이유나 근거는 딱 하나, 자경이 자신의 유일한 일점혈육, 그것도 애미 없이 자신이 홀로 거둔 딸이라는 사실이다. 그 나머지 아무썩어도 쓸모가 없는 우수마발에 불과할 뿐이다. 이 일기의 구절은 자경으로 하여금, 말수 적은 성격으로 인해 살아생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 모를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곡진하면서도 극진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게 한다. 나아가 ‘소중한 빛은 언제나 멀고도 희미한 곳에 있다’는 구절은 번아웃 상태에서 허덕이던 자경으로 하여금 돈오돈수의 죽비의 깨우침을 통해 생의 의욕을 다짐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자경이 응현에게 전화를 걸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선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135면)라는, 미래를 향해 같이 갈 마음과 용기를 내게 한 것이 바로 그 구절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문호 루쉰은 『고향』이라는 산문에서 희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꿈과 현실 사이에 실낱같은 끈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원래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흔히 인생을 항해에다 비유하곤 한다. 인생이라는 장거리 여정을 항해하다 보면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하다가도 느닷없이 거센 폭풍이나 격랑을 만나기도 한다. 인생 또한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비고비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도전이나 과제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그게 인생이다. 그때 중요한 것은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서 부딪쳐보는 게 아닐까라는 말을 전하면서 이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



공종구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끈대의 재발견,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인내를 배우자

2010년대 들어서 언론과 미디어를 점철한 유행어가 있다. 바로 '포기'다. 'N포세대'라는 말에 바로 포기가 들어간다. N포 세대란 N가지의 것들을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을 이야기 할 때 주로 쓰이는데, 요즘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통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독 희생을 강요당하며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요즘의 자영업자들. 하지만 시쳇말로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법이다. 포기 하는 것도 습관이다.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란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혹자는 '끈대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며 비아냥댈 수도 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가끔은 끈대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 이 사회가 고지식한 끈대의 재발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을 치면 다양한 검색어가 쏟아진다. 그 중 업종변경 혹은 폐업과 같은 검색어도 종종 보인다. 이 검색어야말로 요즘을 살아가는 소상공인의 마음을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거리두기 강화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테이블 한칸 띄어 앉기 등으로 동등 정상적인 장사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요식업종 소상공인들은 배달로 영업을 전환하려 해도 배달 수수료가 막목을 잡고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장사를 접고 취직을 하려는 이들이 많은 언론보도가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다.

필자 역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직면한 상황들로 노력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나는 동기들보다 2살 더 많다. 중학교에 추천 배정됐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뒤늦게 입학 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기들이 중학생 교복을 입던 해 4월에는 꾸꾸미를 잡고, 5월에는 오징어를 잡는 등 그 해 줄곧 뱃일을 해야만 했다. 닥치는 대로 돈을 버는 일에 뛰어들었다. 섬에서 자란 나는 육지인 근산에서 거주할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교복을 입은 동기생들을 볼 때마다 극한의 고통이 찾아왔지만 공부에 대한 꿈은 결코 버릴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시간들이 나의 삶과 사업을 지배해왔다고 단언한다. 바로 포기를 모르는 끈대의 근성을 철저히 배우는 훈련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학교는 물론 대학원도 진학했고, 50세 즈음에는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포기의 순간, 포기를 하지 않았더니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냈다.

인생은 마라톤 게임이라고들 한다. 단거리처럼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묵묵히 레이스를 이어 나가는 게임이다. 외 앞으로 치고 나가는지 조금해 할 필요도 없고 날씨가 험하면 잠시 천천히 가면 된다.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갈려는 의지만 있다면 골인점에 도달할 수 있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종내엔 돌에 구멍을 뚫듯이,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다. 수적천석의 출전은 중국 남송 때의 학자 나대경이 쓴 <<학림옥로鶴林玉露>>이다. 중국 북송(北宋)때 장괴애라는 사람이 송양현의 현령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송양현은 도둑질이 만연해 있어 관아의 창고에 있는 물건까지 자주 도난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괴애가 관아를 순시하다가 창고에서 황급히 도망치는 하급 관리를 보게 되었다. 수상하게 여겨서 그를 잡아다 심문하니, 창고에서 엽전 한뼉을 훔쳐 상투 속에 숨겨서 나온 것이었다. 장괴애는 관리에게 여죄를 추궁하며 형리를 시켜 곤장을 치게 했다. 그러자 관리는 겨우 엽전 한뼉 훔친 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면서 항변했다. 이에 장괴애는 "하루에 일 전이면 천 일에 천 전이다(一日一錢千日千錢). 가느다란 노끈이라도 계속 해서 문지르면 나무가 끊어지고, 작은 물방울이라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돌이 뚫리는 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사실 포기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다. 붙잡고 있어 득 될 것이 없다면 빨리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고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는 부분에서 쉽게 포기 해선 안 된다. 노력이 안 되는 일은 때론 인내로 해결될 수 있다. 포기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자. 정신력을 강조하는 끈대라 미안하다. 하지만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해서라도 버틸 수만 있다면 끈대가 되더라도 무엇이 대수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나가는 습관을 들여 골인지점까지 깨끗하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가장 먼 거리를 나는 작은멋쟁이나비



나비목 네발나비과에 속하는 이 작은 생명은 우리나라 전역뿐 아니라 북극을 제외한 모든 곳에 서식한다고 해요. 아프리카의 뜨거운 대지를 지나 지중해의 바람을 타고 영국까지, 또 최근에는 남미까지 4,184km를 날아간다고 보고되었어요. 가장 먼 거리를 나는 나비가 된 거죠. 년 2회에서 4회까지 발생하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비지만 작은멋쟁이나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걸 나비도 모를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비라고만 부르니까요. 햇빛에 비치는 주홍빛 무늬는 정말 멋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할머니, 이 나비는 영어로 Painted lady butterfly라고 해요. 암컷은 애벌레의 먹이가 될 식물에 1개씩만 알을 낳는다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무리로 지중해 위를 나는 작은멋쟁이나비를 볼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상상해봐요.

내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내게 이런 아이가 있어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들어줄 수 있기를요.



신솔원 시인 /
시인 / 한국아동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문학과 사람과 함께, 마음 속 꽃길을 걷는 시간.
삶은 은유이고, 사람은 꽃입니다.
시 한편, 소설 속 한 구절을 펼쳐 우리의 내면을 돌보고,
다정한 연결로 따뜻한 심표가 되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시>

여인숙 / 잘란루딘 루미(1207~1273)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당신과 있는 마음치유의 순간>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손님이 머물고 있을까요?
슬픔이 몰려와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과 후회가 조용히 자리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손님들을 억누르거나 내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님처럼 맞이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며, 그 손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기쁨, 후회, 부끄러움 고통과 아픔, 고독과 슬픔 때로는 이별까지
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초대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미의 시『여인숙』처럼, 그 마음들은 당신이 미처 알지 못
하는 나를 만나게 하고,

뜻밖의 깨달음을 피워낼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스치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작은 의
자 위에 앉은 마음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귀 기울이면 모든 마음은 저 멀리서 보낸 안
내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햇살이 바닥에 스며들듯 발걸음을 천천히 내디디며 내 마음에 꽃
길을 열어 보세요.

삶의 순간마다 일렁임을 느끼며 저 멀리 보내온 안내자를 믿고
따라가 보세요.

이제 한 걸음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 속으로 나아갑니
다.

“지금, 당신 마음에 찾아온 손님에게
한마디 건넨다면 무엇일까요?”



김선순 시인
군산대학교 졸업
시치료·독서치료전문가
봄봄문학상담연구소 대표

군산 출신 세계적인 음악가 '송안훈' 과 바리톤 '문정현'

고향에서 선보이는 감동의 클래식 무대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마친 뒤,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마쳤다.

고향에서 연주하는 두 음악가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각별한 감회를 전하기도 했다.

송안훈 지휘자는 “고향 군산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렌다. 음악을 통해 고향 시민들과 소통하며 특별한 순간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바리톤 문정현 역시 “군산이라는 고향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영광이다. 진심을 담아 무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과 비제의 카르멘 서곡으로 시작해, 문정현의 특별 무대가 이어진다.

특별 무대에서는 문정현이 그만의 힘 있고 맑은 목소리로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 멕시코 음악가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 ▲ 비제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선보인다.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전 악장이 울려 퍼지며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9월 18일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6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군산 출신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객원지휘자 송안훈과 바리톤 문정현과의 협연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뜻깊다.

송안훈 객원지휘자는 군산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악대학에서 디플롬을 전공했다.

이번 연주회를 이끈 또 하나의 군산 출신 음악가는 바리톤 문정현 교수다.

세계적인 콩쿠르인 마리아 칼라스 국제콩쿠르 1위 없는 2위를 수상한 그는 군산

군산예술의전당
군산시 백도로 203
www.arts.gunsan.go.kr/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7월 21일부터 11월 26일 4개월간 관내 전 지역 대상...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진행...8월 31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행정안전부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전국민

기간 비대면조사 | 2025. 7. 21. ~ 8. 31.
방문조사 | 2025. 9. 1. ~ 10. 23.

군산시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군산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로 진행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직접 들어가 사실조사 사항에 답변하면 된다.

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자는 '정부24' 앱 접속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을 마친다. 이후 세대 정보와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될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라도 방문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5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군산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을 포함한 세대 등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과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시행령」제58조의 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품질 쌀 생산 위해 이삭거름 적기·적량 홍보

출수기 25~18일 전 맞춤 비료(N-K) 15kg/10a 시용
신동진벼 1모작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이삭거름 적기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하 '센터')는 고품질 군산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삭거름의 알맞은 시기·적량 시용 권장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만든 홍보물을 지역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7월 말~8월 중순에 걸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삭거름은 벼 이삭이 줄기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무렵 이삭 확보를 위한 웃거름으로 일반품종의 경우 이삭패기 25일 전, 벃대가 길어 도복에 약한 신동진벼는 이삭패기 18일 전에 주는 것이 적당하다.

센터는 올해 일조량이 길고 평균기온이 높아져 전년 대비 이삭패기 날짜가 1일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료량은 시에서 공급하는 맞춤 비료(NK) 기준으로 10a당 15kg이며, 지나치게 거름을 많이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이삭거름 주기 10일 전 미리 물을 대주고 잎의 색을 관찰하여 색이 짙은 논은 표준거름주기보다 일주일 정도 늦추어 주거나 염화加里만 10a당 3~4kg을 거름 주기해준다.

반면, 잎의 색이 옅은 논은 맞춤 비료를 1포 정도 더 줄 수 있다.

반면 완효성비료를 준 논은 이삭거름을 생략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센터는 벼 이삭거름 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등숙이 불량해지고,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도열병 발병 확률이 높아지며 도복(벼가 익어감에 따라 줄기의 지상부 지지력이 약해져서 강한 비바람

으로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현상)에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철에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미질, 수량 및 벼의 후기 생육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삭패기 전 25일부터 이삭 패 후 10일까지는 벼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논물을 2~4cm 깊이로 걸러대기를 실시해 뿌리의 활력 상승 ▲젖은 강우로 벼가 웃자라거나 약해져 도열병, 잎짚무늬마름병, 흑명나방, 이화명나방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수 전 적용약제로 종합방제 필수 등을 당부했다.

‘제8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사전 행사 개최

손편지의 감성, 군산우체통거리에서 다시 피어나다



‘제8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를 앞두고 오는 9월까지 우체통거리 전역에서 다채로운 사전 행사를 진행한다.

사전 행사의 시작은 ‘우체통그리기 대회’

와 ‘손편지쓰기 대회’며, 두 행사는 군산우체국·롯데몰 군산점·한길문고에서 8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참여는 비치된 용지에 그림이나 손

편지를 작성한 후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 26일 손편지 축제 개막일에 우수작품을 뽑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축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9월까지 ‘군산 우체통거리 홍보관’을 방문하면 ‘군산우체통거리’를 기획하고 조성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우체통 모형 저금통&레고 만들기 ▲기념 문화 상품(굿즈) 만들기 등 무료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특히 ‘우체통거리’ 상가 곳곳에 마련된 장소에서 경험하는 ‘느린엽서쓰기’는 관광객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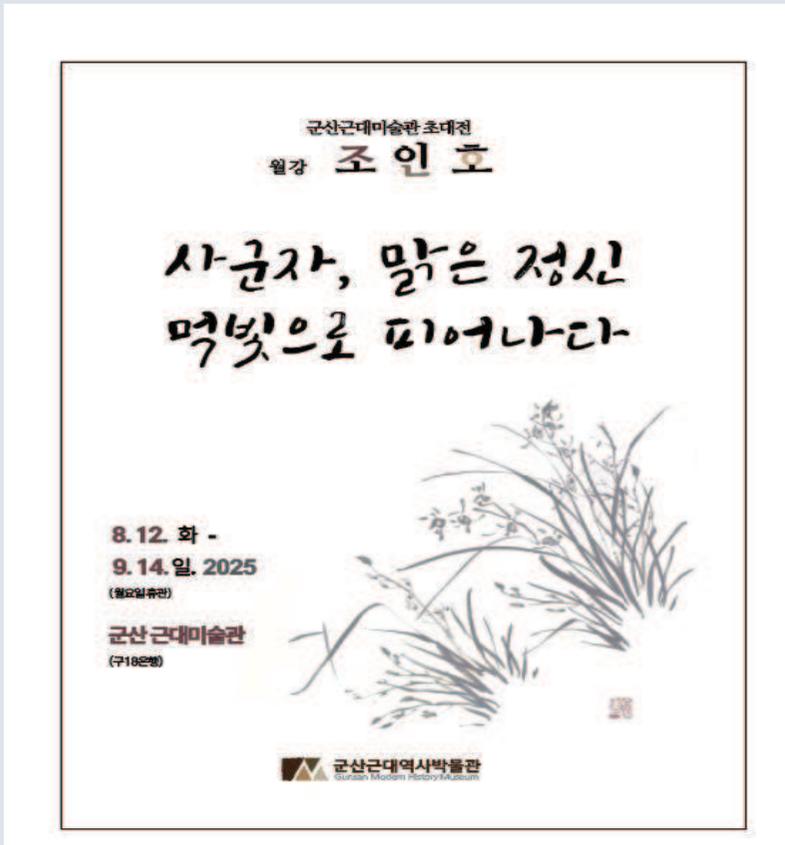
‘느린엽서쓰기’는 관광객이 엽서에 글을 적어 투입하면 1년 뒤에 소인을 찍어 발송하는 방식으로 군산의 추억을 단순한 여행을 넘은 감성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위원회 배학서 회장은 “이번 손편지쓰기 대회 등 사전행사를 통해 군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손편지의 추억과 우체통거리 주민들의 정성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도 “제8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체통거리 주민 여러분과 위원회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군산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근대미술관, 월강 조인호 초대전 개최

맑은 삶을 영위한 선조들의 정신세계를 격조 높은 예술로 승화시킨
서예 문인화 작품 30여 점 선보여



구 18은행 군산근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 오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월강 조인호 작가 초대전 "사군자, 맑은 정신 먹빛으로 피어나라"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그리며 인품과 덕성을 상징했던 사군자(매란국죽)를 중심으로, 작가가 다듬어온 서예와 문인화, 전각 등을 아우르는 30여 점의 작품이 선보여진다.

작품 속에는 매화의 절개, 난초의 고고함, 국화의 청초함, 대나무의 강직함이 작가

의 내면과 서체를 통해 먹빛으로 되살아난다.

작가는 "예술은 이론이 아니라 표현에서 완성된다."라는 철학과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의 신념 아래 전통 서법에 근거를 두되 다양한 서체와 안정된 필획, 생동감 있는 구성으로 개성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화를 즐겨 그리는 점에서 작가의 문인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으며, 군산 제

일고등학교에서 30년의 교직 생활을 거쳐 교장으로 퇴직한 교육자의 자질도 작품 속에서 묻어나온다.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서여기인(書如其人: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이라는 동양 서예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글씨와 그림, 도장을 직접 새기는 전각 작업까지 서예를 통한 전통문화의 총체적 계승을 실천 중이다.

올해 77세(희수, 喜壽)를 맞이한 작가는 전북대학교에서 역사학,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예교육(완당 김정희의 서화론)을 전공하였다.

그간 강암 서예대전, 대한민국 서예대전, 전북 서예대전 등에 참여했고, 7번의 개인전,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 심사위원장, 전북서예대전 이사·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활발하게 서예의 길을 걷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군자를 벗 삼아 고매한 정신으로 살고자 했던 선인들의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며, 전통문화의 본질을 되새기고 향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매년 군산 출신의 원로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기관과 연계한 기획전, 자체 기획전 등을 통해 연 4회 정도 전시를 하고 있다.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기획전시 <세브란스 학생, 만세를 외치다> 개최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기획전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하 '역사관')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22일부터 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다시 빛으로 : 우리 땅, 우리말 그리고 이름'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외지(外地)가 된 우리 땅과 일본의 지방 언어로 전락하게 된 우리말, 일본의 성씨 제도에 맞게 바꾸어야 했던 우리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자료는 <한일합방 기념엽서>, <전라북도 안내도>, <일제강점기 교과서>, <조선어학회 회원 사진>, <광복 기념 우표와 엽서> 등 56건 147점으로 군산근대

역사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하여 ▲외솔기념관 ▲최용신기념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한글학회 등 10개 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우리 한반도》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외지가 되어 일제의 편익에 맞게 변경된 우리 땅과 지명을 알아보고, 우리 지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광복 이후의 모습을 살펴본다.

▲2부 《우리 국어》에서는 일제강점기 국어가 된 일본어와 조선말이 된 우리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국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소개한다.

▲3부 《나의 이름은》에서는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개정된『민사령』에 따라 시행된 '창씨개명'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윤치호의 일기> 등을 통해 살펴보고, 광복 이후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해 복구된 이름, 그리고 '창씨개명'이 남긴 아픔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역사관 관계자는 "우리 땅, 우리말 그리고 이름은 일제강점기 가장 큰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때의 흔적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땅, 우리말 그리고 이름의 무게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회는 11월 16일까지 이어지며, 역사관은 매년 2회 일제강점기 역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시를 기획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양질의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 최초 이명치료기 'ALTMS' 도입



전경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 문화관광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 241-43-01344
 ·사업장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u>·출금계좌 예금주명_</u>	<u>·금융기관명_</u>
<u>·출금 계좌번호_</u>	
<u>·예금주 생년월일_</u>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u>·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u>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경우	
<u>·신청인명_</u>	<u>·예금주와의 관계_</u>
<u>·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u>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인 또는 서명)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졕발의 명가

대표 전 재 용

군산시 미장1길 38 102, 103호

TEL: 063-453-4969

SeAH Best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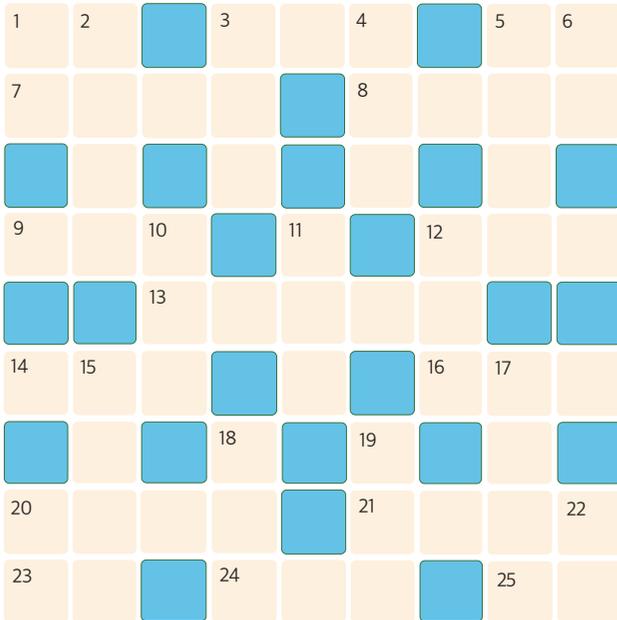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68



<167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본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leejonny_@daum.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시길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본호텔 군산

▶ 가로 열쇠

- 01 인구나 건물 따위가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 00학급.
- 03 8월15일.
- 05 높은 소리.
- 07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 이르는 말.
- 08 한 채씩 따로 지은 집.
- 09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람이 듣고 부르는 노래.
- 12 서울 용산구에 속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 상가와 음식점, 유흥 시설, 관광호텔 따위가 밀집한 지역.
- 13 해양과 수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
- 14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깃과 고름이 없고 앞을 여미지 않으며 단추를 달아 입는다.
- 16 가톨릭에서, 제단 위에 끼는 하얀 천.
- 20 단칼에 마구 헝클어진 삼 가닥을 자름.
- 21 사주의 간지(干支)가 되는 여덟 글자.
- 23 유럽 연합의 법정 단일 통화 명칭.
- 24 아무런 교착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신자.
- 25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과 기술을 겨룸. 또는 그런 일. 올림픽00.

▼ 세로 열쇠

- 01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따위 식물의 열매.
- 02 결혼식을 마치고 부부가 된 사람이 함께 가는 여행 허니문.
- 03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
- 04 물건을 자르는 기계.
- 05 감당을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 06 풍수에서 무덤을 사람 사는 집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양택
- 10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
- 11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할 때 주권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12 학교의 수업을 오전과 오후, 주간·야간 따위의 두 부로 나누어 하는 제도.
- 15 기둥 따위를 세워 땅 위로 높이 설치한 도로.
- 17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구담봉, 옥순봉, 도담 삼봉, 석문, 시인암 등 총북에 있는 여덟 곳의 명승지.
- 18 관직에 임명될 후보자에 관하여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나 평판.
- 19 신사로서 지켜야 할 도리.
- 20 병이 깨끗이 나음.
- 22 사기 그릇. 고려00.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leejonny_@daum.net